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5-07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연구

Strategic Roadmaps for Promoting Halal Food Industry in Jeonbuk State

은성태 이병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은성태

텍사스주립대 농업응용경제학 박사
강원연구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고려대학교 식품·보건경제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5-07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연구

Strategic Roadmaps for Promoting Halal Food Industry in Jeonbuk State

은성태 이병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은성태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 제4장
공동연구 이병훈 | 연구원 |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자문위원 정다은 |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건아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
김원용 |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실장
이현성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선임연구원
김진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선임기술원

연구관리 코드 : 25GI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적인 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 방향 제시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세계 인구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할랄식품 소비시장 성장에 맞추어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할랄식품 제조·생산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함
- 과거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익산에 조성 계획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구축기획안이 무산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문화적·산업적 접근이 중요함
- 할랄식품 산업 육성의 기본이 되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정체성과 할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할랄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목적임
-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파악과 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 할랄식품 인증·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 마련이 목적임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5~2024년으로 설정하였음
- 연구 방법은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 개념과 특성

- 할랄은 무슬림 경전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고 하람은 ‘금지된’ 것을 의미

[표 1] 할랄식품과 하람식품

할랄(Halal) 식품	하람(Haram)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 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 벌꿀 • 생선(민물고기 제외) • 신선한 야채(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 • 밀, 쌀, 호밀, 귀리, 보리 등 곡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주, 에틸 알코올,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성 음료



[그림 1] 전북자치도 할랄 식품산업 육성 체계

- (할랄·지역농업 연계) 할랄 인증 농산물과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원물을 확보하고, 할랄식품 소재 발굴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품목 다양성 확보
- (할랄식품 산업 주체 활성화) 할랄 식품 기업 인증 확대 지원, 할랄식품 시장의 동향 정보 수집·배포 플랫폼 구축, 그리고 할랄식품 개발 지원
- (무슬림과 할랄 이해)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할랄 외식산업 확대와 이슬람 문화제와 같은 상호 이해의 공간을 통해 감소

요 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의 범위	5
나. 연구의 방법	5
3. 연구 주요 내용	6
가. 할랄의 개념과 산업적 접근	6
나.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6
다. 연구의 차별성	6
라.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할랄의 개념과 할랄식품 산업

1. 할랄의 개념 : 종교적·산업적 측면	17
가. 종교적 측면	17
나. 산업적 측면	20
2. 할랄식품 산업 : 인증과 생산	22

가. 할랄식품 인증	24
나. 할랄식품 생산	27
3. 소결	35

제3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및 환경

1. 할랄식품 산업 현황	39
가. 할랄식품 현황	39
나. 할랄식품 인증 환경	43
2.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46
가. 할랄식품 현황	46
나. 할랄식품 인증 환경	51
3.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환경 분석	53
가. 할랄식품 산업 SWOT 분석	53
나. 할랄식품 산업 육성 전략(안)	58
4. 소결	62

제4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1.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65
가. 중장기 비전과 목표	65
나. 할랄과 지역 농업과의 연계	66
다. 할랄식품 산업 관련 주체들의 활성화	67
라. 무슬림과 할랄에 대한 이해 공간 조성	69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방향	71

가. 할랄식품 산업 육성 기대효과	71
나. 향후 연구 방향	72
 참고문헌	 75
 영문요약 (Summary)	 77
 부록	 81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국내 무슬림 인구 현황	3
[표 1-2] 할랄식품 산업 : 할랄 인증과 소비	8
[표 1-3] 할랄식품 산업 : 시장 전략	12
[표 2-1] 이슬람교를 구성하는 5가지 주체	17
[표 2-2] 무슬림의 5대 의무	18
[표 2-3] 무슬림과의 갈등 사례와 원인	18
[표 2-4]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 (2012년)	19
[표 2-5] 수니파·시아파의 할랄식품 인증 기준 차이	20
[표 2-6] 할랄식품과 하람식품	24
[표 3-1] 국내 할랄식품 수출 현황	40
[표 3-2] 국내 할랄 품목별 인증 현황	46
[표 3-3]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현황	47
[표 3-4]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국가별 현황	47
[표 3-5] 전북자치도 할랄 품목별 인증 현황	5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할랄 산업별 점유 비중 (2023년)	21
[그림 2-2] 할랄 산업별 소비액 예측	22
[그림 2-3] 식품 구매 시 할랄 인증 확인 여부	23
[그림 2-4] 가격보다 할랄 인증 중요 여부	23
[그림 2-5] 할랄 인증 프로세스	26
[그림 2-6] 할랄식으로 도축되는 양	27
[그림 2-7] 할랄 도축과 동물복지	27
[그림 2-8] 할랄 인증 닭 도축 과정	28
[그림 2-9] 동물에 대한 할랄 도축	29
[그림 2-10] 할랄 도축 방식에 따른 절개	29
[그림 2-11] 베트남 할랄 어류 가공 공장	31
[그림 2-12] 할랄 인증 달걀	31
[그림 2-13] 식료품 구매 시 할랄에 대한 선호도	34
[그림 2-14] 무슬림 나이에 따른 할랄식품 선호도	35
[그림 3-1] 풀무원 할랄 인증 생라면	41
[그림 3-2] SPC그룹 말레이시아 제빵 공장	41
[그림 3-3] 농심 할랄 신라면	41
[그림 3-4] 오투기 베트남 공장 할랄 인증생산	41
[그림 3-5] 할랄식품 주요 수출국에 대한 업체 수 현황	42
[그림 3-6]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규모	43
[그림 3-7] KMF할랄위원회 상호인정 해외 인증 기관	44
[그림 3-8] 할랄 인증업체 수(개)	45
[그림 3-9] 할랄 인증 품목 수(개)	45
[그림 3-10]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인증업체 수(개)	48
[그림 3-11] 순창○○식품 원물	49
[그림 3-12] 할랄 인증 원물 가공 공정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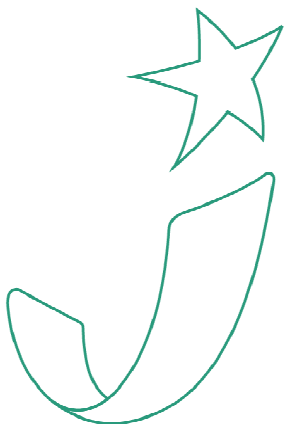
[그림 3-13] 순창○○식품 춘장 가공	49
[그림 3-14] 할랄 인증 춘장 포장	49
[그림 3-15] ○○바이오 전경	50
[그림 3-16] 할랄 인증 콤부차 원료 혼합 공정	50
[그림 3-17] 할랄 인증 콤부차 제조 공정	51
[그림 3-18] 할랄 인증 콤부차 포장 공정	51
[그림 3-19] 한국식품연구원의 할랄 인증 업무협약	52
[그림 3-20] 식품분석센터	52
[그림 3-21]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환경 분석	57
[그림 3-22]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전략	61
 [그림 4-1]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체계	66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적인 할랄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 조성 방향성 제시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무슬림은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종교적 측면에서 2030년 세계 최대 종교로 부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할랄식품 소비시장 성장에 맞추어 할랄식품 제조·생산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함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랄식품은 복잡한 인증 기준으로 인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중 하나라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인증 기관과 품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소규모 식품기업의 할랄식품 산업 진입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 식품 관련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의 신시장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랄식품 산업 육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중요하다.

[표 1-1] 국내 무슬림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율
무슬림	210,306	208,614	272,270	310,554	13.9%
외국인	2,035,793	1,956,515	2,245,912	2,507,584	8.7%
무슬림 비중	10.3%	10.7%	12.1%	12.4%	

출처 : 김동문(2024)

국내에는 [표 1-1]처럼 약 31.1만 명(23년)에 달하는 외국인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가 2020~2023년 사이 연평균 8.7%씩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무슬림 인구는 관련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21만 명(20년)에서 31만 명(23년)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3.9%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통계청의 경우 등록 외국인 현황에 있어 국적과 종교에 따른 구분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 예측하는 무슬림 인구 통계는 등록 외국인의 국적이 이슬람 국가인 경우에 한한 추정일 뿐이다. 이처럼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관한 제한성이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연구에 있어서 쟁점이다.

더불어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중동 방문 이후 익산에 조성 계획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구축기획안이 무산되었던 경험이 존재한다. 당시 이슬람에 대한 외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역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산업적 수요 부족으로 인해 사라진 할랄식품 산업 조성 기회에서 보듯이, 산업적 접근법만을 가지고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성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함께 지역 사회 인식의 반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덧붙여, 할랄식품 산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지역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할랄식품 산업 육성의 기본이 되는 할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할랄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파악과 환경분석을 통해 지역 할랄식품 인증·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국외 식품 수출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성 제안이 마지막 목적이다. 이러한 방향성 제시에 있어 본 연구의 초점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식품기업의 할랄 인증과 할랄식품 수출 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만, 지역 할랄식품 산업 현황 파악에 있어 절반 이상이 영세 식품기업이며 이들에 관한 현황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 방향성 구상에 맞도록 지역 14개 시군으로 설정하였다.¹⁾ 시군에 존재하는 할랄 인증 및 생산 기업의 현황 파악과 비교 연구를 위한 전국 단위의 현황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2024년(최근 10년)으로 설정하였다.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단지 조성 시도와 실패 이후에 우리나라와 전북자치도에서 시도해 온 할랄식품 산업 육성 노력에 관한 현황과 분석을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나. 연구의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통계조사

국내외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관련기관 등이 공개한 통계와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할랄식품 산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산업환경 분석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분석과 할랄식품 인증·생산 관련 현장 실무자의 인터뷰 조사를 근거로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 방향성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

할랄식품 산업을 구성하는 생산·인증·가공·유통 부분에 관한 현장 인터뷰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의견 확보를 통해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 방향성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1)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설정 연구 수행 초점은 지역의 영세 식품기업의 할랄식품 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의 제시와 지역농산물의 할랄 인증 및 식품소재 발굴이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의 특화작물과 소규모 식품기업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했다.

3. 연구 주요 내용

가. 할랄의 개념 정리와 산업적 접근

무슬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할랄의 산업적 적용에 있어 종교적 가치관에 관한 개념을 적시하고 할랄식품 산업에 적용되는 할랄 정체성 이해를 통해 식품산업 기반 조성 방향성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할랄식품 산업에 관한 연구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인증·제품생산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방향성 제시에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에서 할랄식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방문하여 할랄 인증과 생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할랄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나.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성 제안

전북자치도 할랄 인증 및 지원 정책 동향 조사와 연구기관·기업의 할랄 인증과 관련한 현황과 정부 부처별 할랄식품 산업 조성 지원정책, 그리고 전북자치도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SWOT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와 함께 지역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할랄식품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 방향성 제시를 위한 산업 정보 축적 및 정책적 지원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랄식품 산업기반을 구성하는 농가, 기업, 인증, 인력, 교육 등에 대한 정책개발 방향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다.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식품생산을 위한 공정 자원(생산·가공·유통·소비)에 있어서 규모화된 시장인 할랄식품 시장 진입을 위해 인증과 생산 부문에 관한 현황 파악과 환경분석을 통해 발전

가능성과 정책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할랄식품에 관한 연구와 산업 현황을 제시하는 보고서는 202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가 기존 연구 대비 갖는 차별성은 할랄에 관한 산업적 접근과 함께 종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 주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할랄식품 산업 현황 제시와 함께 성장 가능성과 식품산업 발전 필요성만을 언급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할랄이 무슬림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어떻게 할랄식품 제조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종교적·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라. 선행연구 검토

1) 할랄식품 산업 : 할랄 인증과 소비

할랄식품에 관한 산업적 연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이 2015년 이전·이후에 치중되어 있으며 2020년대 이르기까지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홍원수 (2015)는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인증 제품 확대와 생산의 규모화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인증 품목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할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품생산을 위한 소재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 산업, 대학과 연구기관 사이의 협업을 통한 무슬림 시장에 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람 외. (2016)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할랄식품이 갖고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이미지는 관련 식품시장 성장을 이끌어 왔다. 세계시장은 이슬람 윤리관에 대한 이해와 무슬림과의 신뢰 구축을 통한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할랄 인증획득을 위해 국가별로 다른 제도에 관한 연구와 함께 관련 시장 정보를 국내 식품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할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일자리 매칭을 통한 산업 활성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김형준 (2017)은 이슬람 경제 성장과 함께 할랄 소비의 등장 및 제도화를 살펴보았다. 할랄 소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인증,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연구하여 국내 할랄 소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에 제정된 「할랄제품보장법」²⁾이

가진 무슬림 사회에서 소비 행위가 이슬람의 중요성이 경제적 영역에서 경험되어지고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종교적 교리 행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진구복 (2016)은 할랄식품 인증을 위해서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근거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료를 활용한 식품이어야 한다. 육류의 경우 할랄 육류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종, 사료, 사육환경, 도축 등 가공·유통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후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 축산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할랄 인증 육류제품 개발을 노력해야 한다.

이상미 외. (2017)은 할랄식품에 관한 이해와 식품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 구매자들에게 할랄식품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할랄식품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식품 외에 종교적 편향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할랄식품이 인증 과정을 거쳐 위생과 안전한 음식이라는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박수진 (2017)은 할랄식품 인증과 함께 수출을 위한 소비자 수요와 구매 행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특히나 우리나라의 특화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무슬림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의 경우 건강 등의 이유를 목적으로 인삼·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지인에게 추천하거나 재구매에 대한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속적인 소비시장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함께 시장 친화적인 홍보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표 1-2] 할랄식품 산업 : 할랄 인증과 소비

구분	제목	연구내용	조사방법
홍원수 (2015)	할랄식품 산업과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의 인증 제품 확대와 생산 증대가 중요 정부, 산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한 할랄 시장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통계조사 사례분석

- 2)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랄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3호)

구분	제목	연구내용	조사방법
한아름 외. (2016)	한국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식품 시장과 할랄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과 종교를 동일시하지 않고 할랄식품 안전성과 위생이 중요 •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촉적과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김형준 (2017)	이슬람과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무슬림 사이에서 경제적 소비와의 연결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진구복 (2016)	축산식품의 할랄인증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식품인증에는 율법과 원료에 대한 안정성과 위생성이 담보 • 축산분야에 대한 할랄 인증 노력은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분석
이상미 외. (2017)	고객의 심리적 거리가 할랄푸드 인식과 할랄푸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구매에 있어 할랄식품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구매는 부정적 •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대중의 생각 전환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설문조사
박수진 (2017)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소비자의 인삼·홍삼 제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건강식품의 할랄 인증을 통한 무슬림 소비자 구매인식 조사 •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할랄 인증을 통한 생산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설문조사
최영민 (2025)	K-Halal Food의 해외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ood의 영향력 향상과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요 • 현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근거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컨조인트 분석
이슬이 외. (2025)	국내 할랄연구실 현황: 할랄 인증을 위한 과학적 검증과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람성분 검출은 할랄 인증의 중요한 단계 • 무슬림 시장 확장을 위한 하람성분 대체 식품소재 개발 중요 • 할랄 인증에 관한 국가별 기준의 상이함은 시간, 비용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조사 • 통계조사
이현성 외. (2025)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상호인정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부담 감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조사 • 사례조사

출처 : 다양한 국내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2025)

2) 할랄식품 산업 : 시장 전략

김철민 (2015)는 할랄식품 시장진출을 위한 할랄 제품의 생산과 인증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할랄이 어떻게 인증되고 할랄식품 소비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무슬림 국가

들의 할랄 인증 기준과 관련 절차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할랄 식품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해서는 할랄에 대한 이해, 인증,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배민식 외. (2015)는 할랄식품 시장진출을 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재외공관을 활용한 할랄 식품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할랄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장려와 인증 관련 비용 지원, 동남아·중동 무슬림 국가의 식품박람회 참석 등의 중요함을 언급했다. 그리고 국내 할랄식품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코셔(Kosher)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무슬림도 섭취가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돈 외. (2014)는 할랄식품 시장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4에 달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환경 여건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할랄 식품시장의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국가의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 중에서 식품시장이 주류를 이루며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식품 관련 시설과 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그중에 할랄 인증 적용이 힘든 품목이 축산물이며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시장에 나가게 된다.

김형길 외. (2015)는 국내 식품시장 현황과 제주 지역 농식품산업 현황, 할랄식품 시장 현황과 특성 및 인증제도와 관련한 할랄 시장진출 전략 발굴을 통해 할랄 인증 지원 시스템 구축, 제주 농식품 할랄 스타 상품 개발과 육성, 국내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인증 식품 공급 체계 조성과 국내 할랄 인증 식품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력 수립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기환 (2015)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무슬림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른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을 예측하여 해외수출과 함께 자국 내 이슬람 이주민에 대한 내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할랄 인증은 ‘일본무슬림협회’, ‘일본할랄협회’ 등의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의 할랄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육성과 인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윤재 외. (2015)는 국내 할랄식품 시장 현황과 국내 거주 무슬림 소비자의 할랄식품 소비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할랄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할랄식품 관련 연구들이 수출시장 확보에 맞춰져 있으나, 이를 위한 국내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판매되는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신뢰도는 확인되나, 다양성과 구매 편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는 것을 보였다.

김은미 (2015)는 지역별 할랄 시장은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중동 지역은 식품 자급률이 낮아 식품의 수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이를 고려한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하고, 무슬림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고려한 할랄식품 개발과 제조 체계가 필요하다. 할랄 인증을 획득한 식품이 갖는 안정성과 위생성이라는 정체성을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확대와 관련 문화의 전파에 활용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할랄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 등을 포함한 근거에 따른 포괄적 기준이 있음에도 이슬람 율법과 지역별 관습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 다름을 고려 해야 한다.

이소현 (2023)은 국가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다문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 이주민 관련 정책 발굴은 정확한 실태 분석에 기초한다. 국내 무슬림 이주민 규모는 약 11만 명(16년)에서 16만 명(22년)으로 연평균 5.7%가 성장했다. 대부분 이주민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분포하여 직업적 선택권이 반영된 분포이자 무슬림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슬림 이주민 거주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시사점 도출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무슬림 이주민 관련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윤정 (2023)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의 다문화로 인한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 무슬림 학생들의 우리나라 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의 차이를 보인다. 향후, 보다 많은 수의 무슬림 유학생의 한국 생활의 편의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정민 (2023)은 할랄 산업은 이슬람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의 구분 없이 주목받는 산업이며, 할랄 시장은 육류, 가공식품 중심에서 식품산업 전반과 화장품, 의약품,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에도 250여 개 이상의 할랄 인증 단체와 함께 율법과 지역에 따라 다른 인증 기준은 할랄 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할랄 시장에 관한 세분화한 연구와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김동문 (2024)는 한국 내 체류 외국인 무슬림 인구의 통계적 수치 추정을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논했다. 이슬람협력기구(OIC :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가

입국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조건이다. 그러나, 이슬람협력기구 소속 국가 중에도 기독교 국가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내 거주 무슬림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출신 무슬림 국가의 인구 비율을 반영한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 추정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른 국내 외국인 무슬림 인구는 32만 명(24년)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의 11.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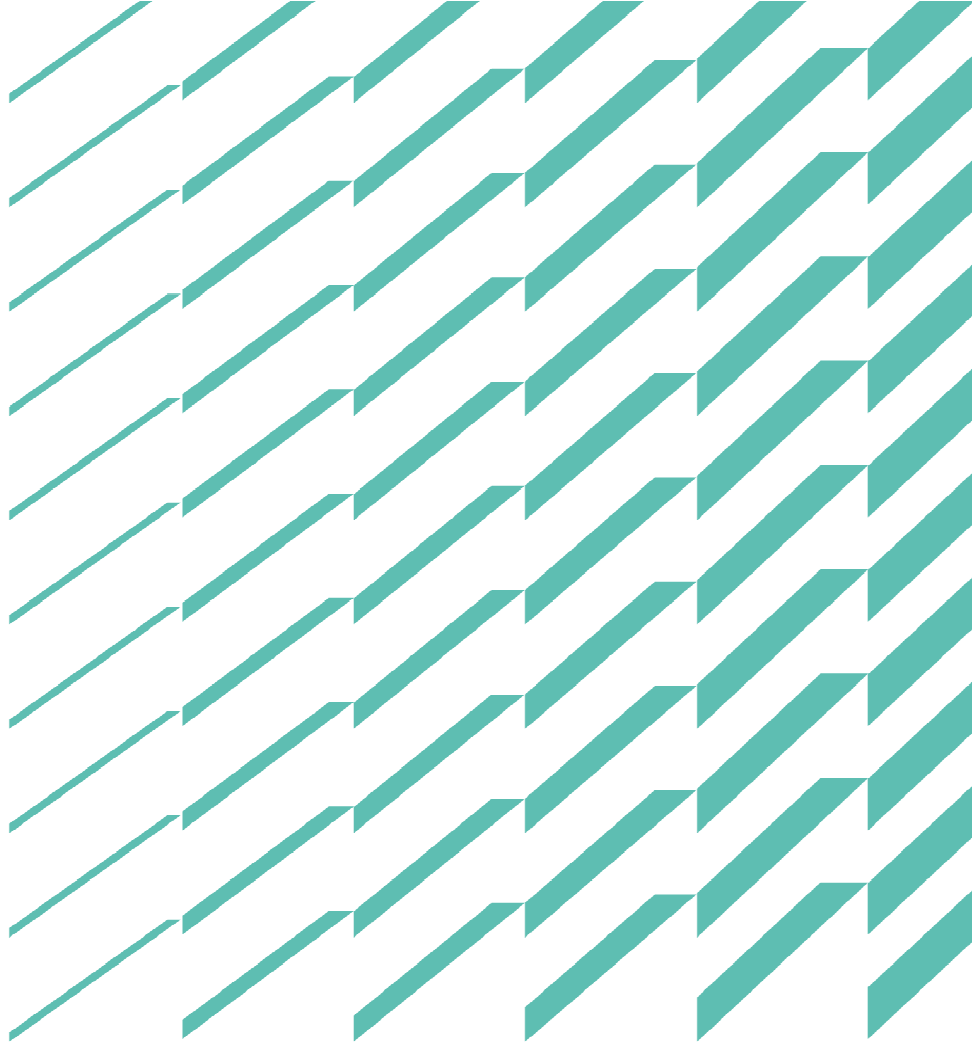
김진 외. (2025)는 이슬람의 종교적 규정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원료 또한 소비가 허가된 것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종파, 학파, 지역적 해석에 따라 나타나는 인증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할랄식품 수출의 50% 이상이 ‘곡물·곡분의 주제품 및 빵류’ 중 라면이며,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슬람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랄 인증이며, 이것은 종교적 관점뿐이 아닌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1-3] 할랄식품 산업 : 시장 전략

구분	제목	연구내용	조사방법
김철민 (2015)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방향성 논의 • 할랄에 대한 이해, 인증획득에 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배민식 외. (2015)	세계 할랄(Halal) 식품시장 최근 동향과 진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인증,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통한 잠재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사례조사 • 국가·지역 통계자료
안상돈 외. (2014)	수출 틈새시장으로서의 할랄 식품시장과 축산업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구 중 20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소비시장에서 식품산업 성장 • 축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통한 안정·위생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김형길 외. (2015)	제주지역 농식품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할랄 식품시장 진출 전략 필요 • 국내·외 할랄 인증 식품 기업을 위한 내수 및 수출전략 발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현황조사, 모형분석
박기환 (2015)	할랄 농식품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은 민간 주도로 할랄 인증에 관한 대응을 해옴 •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분석
황윤재 외. (2015)	국내 할랄식품 시장 실태와 대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 무슬림의 소비 행태 분석을 통한 할랄식품 시장 분석 •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다양성과 구매 편의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설문조사

구분	제목	연구내용	조사방법
김은미 (2015)	할랄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획득을 통한 국내 식품시장 해외 진출방안 강구 • 종파·지역별 다른 인증 방식에 관한 사전 연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이소현 (2023)	국내 무슬림이주민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 이주민의 거주 분포 분석을 통한 특성 파악 • 사회적 갈등과 산업적 협력을 위한 공간 분포 기반 정책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상관분석
이윤정 (2023)	무슬림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로 변화로 인한 다양성 존중이 중요 • 무슬림 유학생의 한국 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Glaser & Strauss 분석
장정민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할랄 푸드 소비자 인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을 통한 산업은 식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 • 할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기준의 표준화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TF-IDF, CONCOR 분석
김동문 (2024)	한국 내 외국인 무슬림이주자 인구 추산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무슬림 인구의 논리적 추론을 위한 추정 방법을 논의 • 출신 무슬림 국가의 국내 인구 비율을 반영한 추산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사례조사
김진 외. (2025)	국내 할랄식품 수출 동향 및 주요 품목별 추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의 기준이 종파, 학파, 지역별 차이가 발생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확장과 함께 할랄 인증 지원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 기업 설문조사
조영찬 (2025)	국내 할랄 외식업의 현황 및 시장 정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식품 시장 확장을 위한 외식업 활성화 중요 • 할랄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분석 • 사례조사
김형훈 외. (2025)	이슬람법적 관점에서의 할랄 규정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분석 •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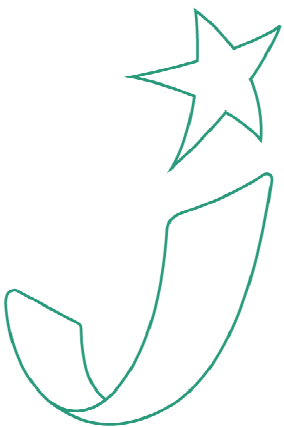
출처 : 다양한 국내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2025)



제2장

할랄의 개념과 할랄식품 산업

1. 할랄의 개념 : 종교적·산업적 측면
2. 할랄식품 산업 : 인증과 생산
3. 소결



제 2 장 할랄과 할랄식품 산업

1. 할랄의 개념 : 종교적·산업적 측면

가. 종교적 측면

이슬람교 교리의 중심은 ‘알라’라는 신의 단일성이다. 이슬람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표 2-1]처럼 이슬람, 무슬림, 꾸란, 하디스, 샤리아와 같이 5가지 큰 주체들로 볼 수 있다. 이슬람교의 정체성은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며, 신으로부터 계시 받은 종교적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인 꾸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믿고 따른다. 또한, 선지자의 말을 기록한 하디스와 함께 성문법과는 다른 율법적 규범인 샤리아를 그들의 행동 양식 전반에 적용하며 산다.

[표 2-1] 이슬람교를 구성하는 5가지 주체

구분	내용
이슬람(Isl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의 창조자인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610년 창시
무슬림(Musl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슬람을 믿는 자’라는 의미이며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함께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로 믿고 존경
꾸란(Qur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슬람 경전으로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내용 하나님의 부여한 기적이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
하디스(Hadi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라의 말씀인 꾸란과 달리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에 대한 기록 꾸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슬림의 행동 규범을 규정
샤리아(Sh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꾸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한 이슬람 법체계로 인간이 아닌 신의 계시에 의한 불변의 법으로 인식되어 무슬림 행동 양식에 영향

출처: 국가정보원 (2017)

무슬림은 위에 언급한 종교적 주체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표 2-2]와 같은 의무를 삶의 가르침으로 삼고 복종하고 지키려 한다. 무슬림의 5대 의무라고 불리는 신앙고백, 기도, 회사, 단식, 성지순례는 그 어느 것도 소홀해선 안 되며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무슬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그들의 종교적 주체와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상호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표 2-2] 무슬림의 5대 의무

구분	내용
샤하다(Shahada)	•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명한다.’ 구절을 이슬람 신앙고백
살라트(Salat)	• 무슬림들은 매일 5회 사원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소리가 들리면 사우디 기도
자카트(Zakat)	•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
희사	• 무슬림이 내는 종교기부금으로 사원건립, 종교 행사, 가난한 이웃 지원
싸움(Sawm)	• 가난한 무슬림은 면제
단식	• 이슬람력 9월 (라마단 : 30일) 간 신에 대한 복종과 믿음을 표시
하지(Haji)	• 일출 전부터 일몰까지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금함(병자, 임신, 노인, 어린이 등은 제외)
성지순례	• 사우디 메카에 있는 카바신전, 미나계곡, 아라파트동산 등을 방문하는 행사
	•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건강한 무슬림은 일생에 한번은 해야 하는 의무

출처: 국가정보원 (2017)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들은 본의와 다르게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비롯한 폭력적인 행위들과 동반된다. [표 2-3]처럼 무슬림이 신성시하는 규범들에 대한 외부인의 대처는 단순히 종교적 오해가 아닌 생활과, 나아가 산업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표 2-3] 무슬림과의 갈등 사례와 원인

구분	내용
예배	• [사례] 인도네시아 한국인 사업가의 목표 달성 미달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요일예배 단축 지시에 근로자 반발 및 파업
종교적 상징물	• [결과] 사업가의 사과 후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금요일예배 보장 • [사례] 이라크 사업장 내 쓰러져 있던 ‘이맘 후세인’ 추모 깃발을 세웠을 때 현지인들의 깃발 훼손에 대한 오해로 인한 폭력 행사
교리	• [결과] 이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도 무슬림과의 의논으로 오해 소지 차단 • [사례] 무슬림 동료에게 순교와 관계있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농담을 모욕으로 생각하여 폭행 • [결과] 무슬림에게 순교란 신성하고 영예로운 죽음을 의미하므로 순교 등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발언은 조심
라마단	• [사례] 라마단 기간 중의 금식은 무슬림에게 신성한 의무임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 제공, 취식에 대한 사과 요구 • [결과] 무슬림에게 있어 라마단 금식은 익숙한 행사이므로 음식을 제공해선 안되고, 무슬림 근처에서 취식을 해선 안됨
사원	• [사례] 이슬람 사원으로 반려견과의 출입 시도에 무슬림들과의 문제 발생 • [결과] 꾸란은 개나 돼지를 청결하지 못한 동물로 취급하여 이슬람 종교시설에 방문할 때는 동반하지 않는 것이 예의

출처: 국가정보원 (2017)

그렇다면, 이슬람교가 갖는 종교적인 장치들은 비무슬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표 2-4]는 2012년 실시된 국내 6,530명의 비무슬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슬람교와 무

슬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문한 결과의 일부이다. 이슬람교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응답자의 71.0%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무슬림과 테러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답변에서는 긍정적 답변(52.2%)이 부정적 답변(47.8%)보다 높게 나왔다. 이것은 대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과 테러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언론을 통해 무슬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국내에서 이슬람교 성장에 따른 무슬림 교인의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3%에 달한다.

[표 2-4]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 (2012년)

구분		긍정적 답변		부정적 답변	
분야	질 의	명	비중	명	비중
인 지	• 이슬람교에 관심이 있는가?	1894	29.0	4636	71.0
호 감	• 이슬람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524	8.0	1202	18.4
관 계	• 테러와 이슬람교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3,411	52.2	3,119	47.8
언 론	• 이슬람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공정 하다고 보는가?	3,498	53.6	3,032	46.5
종 교	• 우리 사회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증가에 관한 생각?	3,456	53.0	3,074	47.1
	• 국내 이슬람교의 성장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1616	24.8	4914	75.3

주: 이슬람교에 관한 호감에 대한 질의에 4,804명(73.6%)이 긍정적·부정적이 아닌 무관심이라는 답변을 했다.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최소 7곳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가 벌어졌다. 세 건의 폭발 사건을 시작으로 130여 명의 인질이 사망했다. 당시 자신들을 이슬람 국가(IS : Islam State)라고 하는 단체는 세속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토를 정복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테러를 자행했다. 이러한 국제적 불행은 2015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중동 순방의 성과의 하나로 시작됐었던 ‘할랄식품단지’ 육성을 어렵게 했던 원인 이었다.

■ 할랄이란?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혹은 ‘합법적인’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무슬림에게 허용된 것들을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하람(Haram)’은 ‘금지된’ 혹은 ‘불법적인’ 것을 의미하며 무슬림이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한다. 이처럼 할랄은 무슬림 신자들의 삶 전체에 걸친 종교적·윤리적 지침이다. 또한, 무슬림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된다. 이 규범은 결혼과 가족관계, 경제, 형벌 등 세속적인 사

항과 동시에 기도, 성지순례, 금식과 같은 다양한 신앙적·도덕적 주제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룬다.

그러나 샤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법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종파 및 학파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 및 적용된다. 이슬람교는 크게 여덟 종파로 나뉘는데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0억 명 이상의 수니파(Sunnis)와 1억 명 이상의 시아파(Shias)이며, 종파 간에는 창시자인 모하메드 이후 지도자의 정통성, 꾸란의 해석, 이슬람교 의식에 대한 태도 등에 차이가 있다. 무슬림에게 할랄과 하람이 엄격히 구분됨에 따라 그들에게 소비가 허락되는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할랄 제품과 할랄 시장이 형성되었다.

[표 2-5] 수니파·시아파 할랄식품 인증 기준 차이

구분	수니파	시아파
해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하나피 학파에 따르면 바다·내수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물이 할랄이 될 수 있음 • 하나피 학파에 따르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물고기 중에 한하여 할랄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늘을 가진 수중생물만이 할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새우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 • 문어나 가재와 같은 그 외의 해산물은 할랄이 아닌 하람으로 인정
도축된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학파에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에 의해 도축된 육류도 할랄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아파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무슬림에 의해 도축된 육류를 할랄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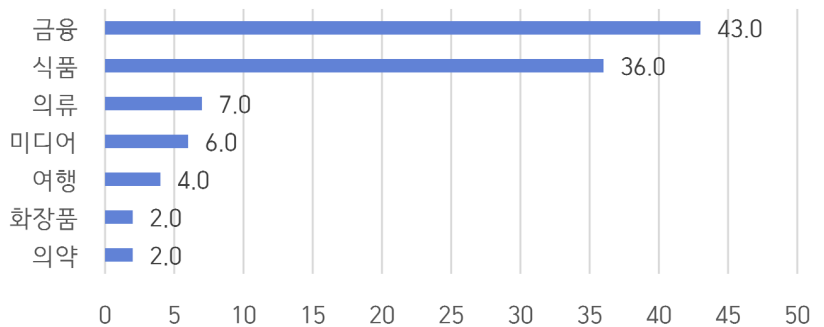
출처: Wikipedia (2025)

[표 2-5]처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종교적 종파 사이에서 할랄로 인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처럼 할랄은 단순한 식품 제조상의 규정이나 종교적 관행을 넘어서, 무슬림의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생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할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슬림 사회를 존중하고, 글로벌시대에 상호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나. 산업적 측면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명(25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할랄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종교적 분석을 기반으로 산업적 접근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할랄이 적용되는 산업은 각 분야에 적합한 인증을 통해 그 기반이 조성된다.

할랄 인증을 통한 산업의 형태는 의류, 미디어, 여행, 화장품, 의약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그림 2-1]에 따르면 2023년 할랄 인증을 통한 산업 형태에서 금융 분야 (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 분야 (36%)는 2위이다. 식품의 경우, 할랄식품 산업은 가공식품, 육류, 유제품, 음료, 제과류, 냉동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 되며, 포장재, 조미료, 식품 첨가물까지도 할랄 기준을 적용받아 인증과 생산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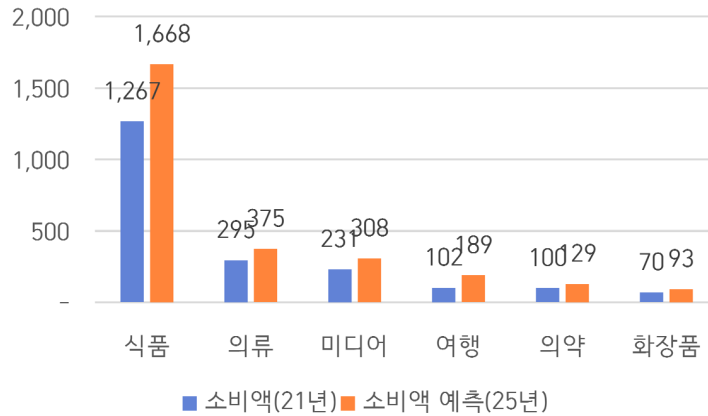


[그림 2-1] 할랄 산업별 점유 비중 (2023년)

단위 : %

출처 : Market.us Media (2025)

할랄은 식품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 무슬림에게 있어 율법에 따른 엄격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방식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약 2.7~2.9조 달러(24년) 규모이며,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7~8%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2-2] 할랄 산업별 소비액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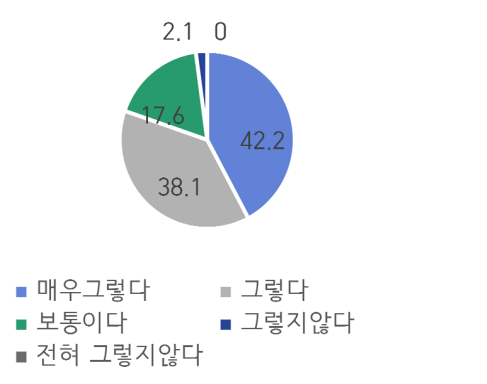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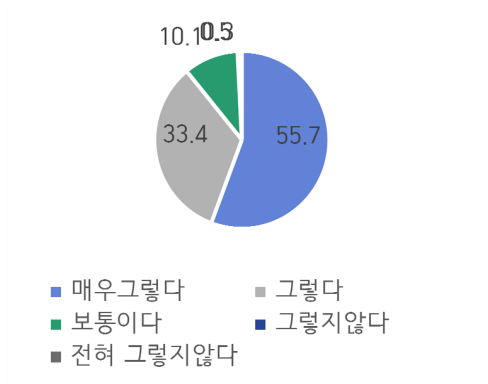
단위 : USD 십억

출처 : Market.us Media (2025)

[그림 2-2]처럼 할랄식품 부문에 대한 소비액은 1.3조(21년)에서 1.7조 달러(25년 예측)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31.6%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품은 필수 제품·서비스라는 특징에 있어서 다른 할랄 인증 산업 분야에 비해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

2. 할랄식품 산업 : 인증과 생산

할랄식품 산업의 성장 요소는 ①무슬림 인구 증가, ②비무슬림 소비자 증가, ③ 글로벌 식품 네트워크 확대가 있다.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이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할랄식품을 소비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가치 소비에 관한 관심 증가 또한 할랄식품 산업의 발전 요소이다. 할랄식품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 ‘안전함’ 등의 가치에 관한 소비 심리의 증가에 따라 이를 소비하는 비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무슬림을 위한 식품에서 건강식품 및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 식품 구매 시 할랄 인증 확인 여부
출처 : 한국할랄인증원 (2020)

[그림 2-4] 가격보다 할랄 인증 중요 여부

[그림 2-3]에 따르면 무슬림의 경우 식품을 구매할 때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이 89.1%에 달한다. 심지어, [그림 2-4]에 의하면 무슬림의 식품 구매에 있어서 가격보다 할랄 인증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80.3%에 달함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식품의 특성과 유통망과 무역의 확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식품을 무슬림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할랄식품 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2-6]처럼 품목에 따라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된 식품을 할랄 인증을 통해 생산하여 판매한다.

[표 2-6] 할랄식품과 하람식품

할랄(Halal) 식품	하람(Haram)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 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 벌꿀 • 생선(민물고기 제외) • 신선한 야채(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 밀, 쌀, 호밀, 귀리, 보리 등 곡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주, 에틸 알코올,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성 음료

출처 : 삼정KPMG (2015)

할랄식품 산업은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산업을 말하며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의 핵심 분야다. 할랄 기준에 따른 인증획득을 위해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생산설비 운영 및 원료 공급망에 있어 기존 식품과의 분리 등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 할랄식품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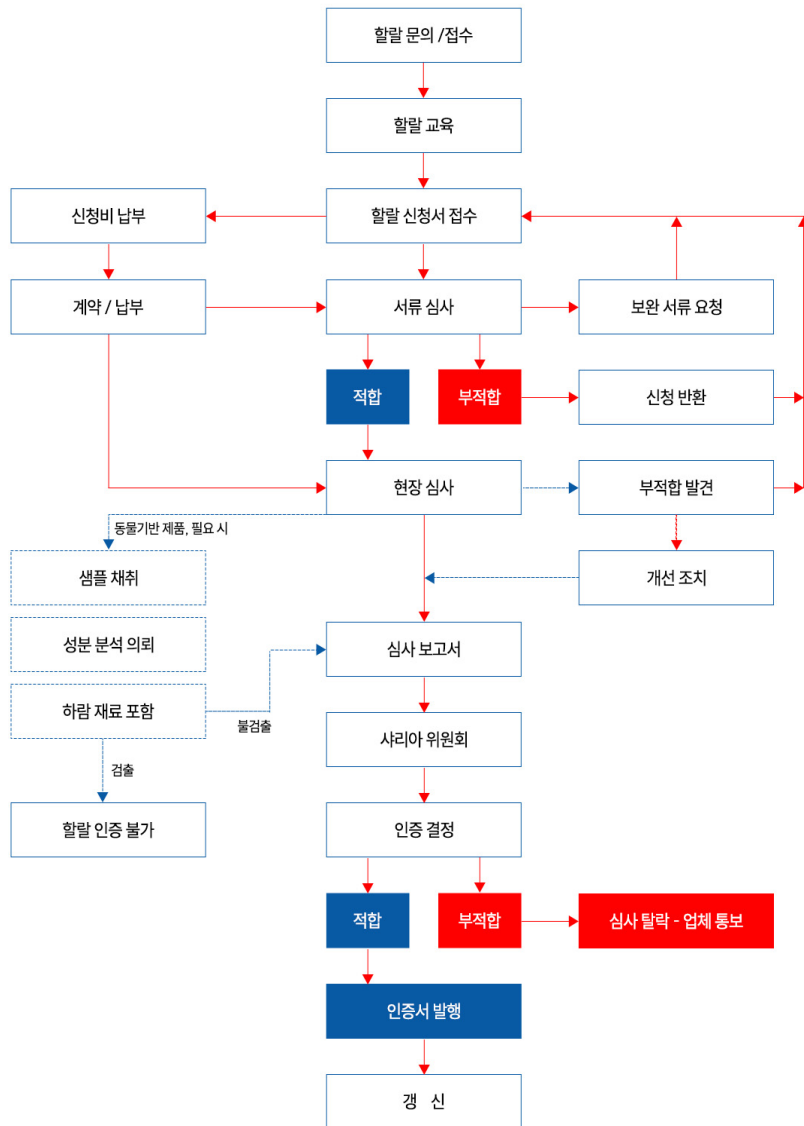
할랄 인증의 목적은 무슬림 소비자의 신앙에 따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할랄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에 의한 ‘신에 의해 허가된’ 제품·서비스 만을 소비하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원료·가공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최종 제품이 할랄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을 통한 인증은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슬람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할랄 인증 여부는 수입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상국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과 국가는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무슬림 소비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K-푸드는 세계적 인지도와 함께 한국 식품의 할랄 인증을 통해 중동,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또한, 라면, 음료, 김치, 소스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국내 제품의 할랄 인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 인증 레스토랑, 기내식, 급식 등 관련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무슬림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이슬람 국가마다 다양한 할랄 인증 기관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인도네시아의 MUI(Majelis Ulama Indonesia, 한국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 Korea Muslim Feder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위 기관들은 할랄 제품생산에 있어 원료와 과정, 위생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할랄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무슬림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할랄 인증은 제품·서비스가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생산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국가라 하더라도 각 국가가 운영하는 인증 기관에 의해 다르게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①재료의 적합성, ②생산·가공 공정, ③생산·가공 현장 ④생산·가공 인력, ⑤인증서 발급·갱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최종 제품생산에 있어 사용되는 원료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이다. 그리고, 생산·가공 과정에 있어서 할랄이 아닌 하람에 근접한 원인과의 교차성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제품생산에 있어 공정을 운용하는 인력들의 할랄에 대한 기본적 지식 여부가 중요한 인증획득의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할랄 인증의 경우 일회 획득에 따라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할랄 인증의 효과는 거대한 소비시장 접근성 확보, 품질 관리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할랄 인증은 제품·서비스의 생산·유통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무슬림 소비자에게도 제품·서비스 소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할랄 인증획득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인증 기준 또한 국가마다 다르기에 동일한 제품·서비스 일지라도 중복 인증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림 2-5] 할랄 인증 프로세스

주 : 할랄 인증 과정은 인증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출처 : 한국할랄인증원 (2025)

인증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해소하기 위한 57개국 이슬람 국가들로 이루어진 이슬람협력기구(OIC :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산하의 이슬람국 표준 기준 및 도량 기구(SMIIC : Standards and Methodology Institute for the Islamic Countries)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나. 할랄식품 생산

할랄식품에 대한 인증은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통한 생산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할랄에 의해 허용된 재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가공 하였는지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가공(도축), 운반, 보관까지의 과정이 이슬람 율법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면, 식품 원료에 있어서 할랄인 소, 닭, 양 등은 도축 시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할랄일지라도 인증을 받지 못한다. 할랄 도축의 경우 동물은 건강한 상태여야 하고, 도축 기술자는 반드시 무슬림 신자이며 도축 과정에서 알라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를 한 뒤 도축해야 한다.

그리고, 도축 후에도 동물의 피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고기는 하람적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육류인 돼지, 자연사한 동물, 그리고 이슬람식 도축을 거치지 않은 고기는 ‘하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할랄식 도축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할랄 식품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2-6] 할랄식으로 도축되는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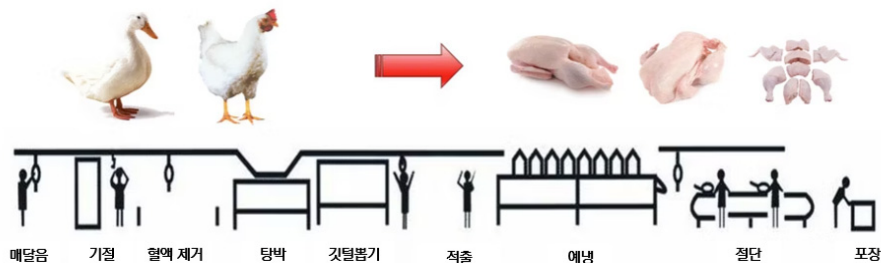
[그림 2-7] 할랄 도축과 동물복지

출처 : 좌 : HUFFPOST (2016), 우 : 국민일보 (2015)

그럼에도 종교적 정의에 따른 형식적 단계와 더불어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식품 기업들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제품을 출하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식품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비무슬림 소비자들의 할랄식품에 대한 선호는 도축 부분을 제외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에 따른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슬림의 식이 관련 제한 사항, 금지 등에 관한 요건들은 대부분 동물에 적용되며 이를 다ḥḥ(ḥabbh)³⁾ 라고 한다.

1) 육류와 가금류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육류는 할랄 중에 속해야 하며, 도축은 정신이 바른 성인 무슬림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행해야 한다. 도축 과정에서 예리한 칼을 사용하여 동물의 목을 절단해야 하고, 충분한 혈액 배출을 통해 빠른 죽음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슬람은 할랄 도축 대상인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분을 위하여 사육, 운송, 처리, 저장 등 도축 과정을 다루고 있다.⁴⁾



[그림 2-8] 할랄 인증 닭 도축 과정

출처 : Made-in-China (2025)

이러한 요건들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며, 동물이 부적절하게 취급되었다고 해서 하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랄 도축에 대한 우려 중 하나인 동물복지 측면에 대해서는

- 3)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육류를 도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신이 맑은 성인 무슬림이 알라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단번에 가축의 목을 절단하는 도축법이다.
- 4) 다만, 할랄 축산물 도축 과정에서 이슬람의 기준에 따른 인도적 도축 방식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동물복지와의 차이에 있어 의견이 다양하다.

오히려 비할랄 도축 방법인 기절(stunning)⁵⁾이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북미 지역의 무슬림 사이에서 할랄로 허용되기도 한다.

■ 할랄 도축의 조건

다흐브는 무슬림이 육류를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규정된 도축 방법이다. 다흐브는 정화 혹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슬람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말한다. 먼저, 다흐브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성인 무슬림이어야 하며, 남녀 어느 성별이든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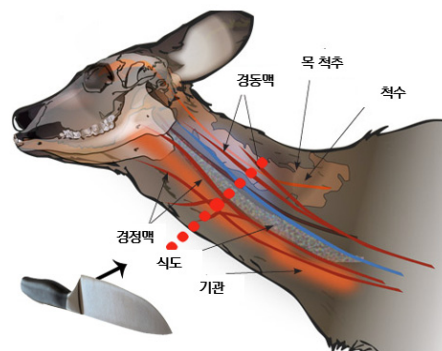
■ 할랄 도축 장비와 절개

다흐브에 사용되는 칼은 날카롭고 이가 없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그 이유는 피부를 빠르게 절개하고 혈관을 절단하여 즉각적이고 빠른 혈액 배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슬림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무함마드는 피부만 베고 경정맥을 절단하지 못해 동물을 빠르게 죽이지 못하는 도구 사용을 금지한다. 절개는 성대 아래와 목 사이의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절차를 나흐르(nahr)⁶⁾라고 한다.



[그림 2-9] 동물에 대한 할랄 도축

출처 : ESDAW (2025)



[그림 2-10] 할랄 도축 방식에 따른 절개

-
- 5) 가축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절 과정을 말하며, 전기 충격, 가스 마취, 둔기 타격 등의 방법이 있다.
 - 6) 할랄 도축에 있어 동물의 목 부분을 칼로 내리쳐 피를 완전히 빼내는 도축 방식을 말한다.

현대에는 기절 기법의 도입에 따라 전통적 절차를 점차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정맥과 목동맥을 포함하여 기관과 식도를 반드시 절단해야 한다. 그러나, 척수는 절단해서는 안 되고, 머리 역시 완전히 절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절개 방법은 유대교식 도살인 코셔(Kosher) 도축⁷⁾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할랄 도축과 달리 도축 시마다 기도 하지 않고, 도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기도 한다는 점이 다르다.

■ 할랄 도축 장점과 동물복지

다흐브를 통한 동물 도축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①매우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절개하기 때문에 전체 도축 시간이 짧아진다. 현대 도축장에서 동물을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경우, 일부 동물은 한 번의 타격으로 의식을 잃지 않아 여러 번 타격해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동물복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②신속하고 빠른 출혈을 가능하게 한다. 다흐브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은 기절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보다 혈관을 짜내는 듯한 작용을 통해 더 많은 혈액이 빠져나오도록 한다.

2) 어류와 해산물

어류와 해산물의 할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이 제시하는 규정과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문화적 관습을 이해해야 한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모든 이슬람 종파와 무슬림 공동체에서 할랄로 허용된다. 반대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하람으로 여겨진다. 또한, 해산물, 연체동물, 갑각류의 할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심지어 단일 이슬람 정파 내부에서도, 허용되는 해산물의 종류는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식품 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해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의 해산물 관련 관습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7) 유대교 코셔 도축은 반드시 람비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수한 칼을 사용하여 가축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11] 베트남 할랄 어류 가공 공장



[그림 2-12] 할랄 인증 달걀

출처 : 좌 : Vietnam+ (2025), 우 : Noor Poultry (2025)

3) 우유와 계란

할랄 동물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달걀은 할랄이다. 유통되는 대부분의 우유는 소에서, 달걀은 산란계 닭에서 얻어진다. 또한, 다른 동물에서 얻은 우유나 달걀은 반드시 그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우유와 달걀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우유는 치즈, 버터, 크림 등을 만드는 사용되고, 치즈 제조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사용되며, 여기에서 어떤 효소가 사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효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할랄일 수도 있고 하람일 수 있다. 미생물 또는 식물 유래 효소, 혹은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에서 얻은 효소는 할랄이다. 그러나, 할랄 종의 동물이라도 할랄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거나 돼지에서 유래된 효소는 하람이다.

4) 작물과 채소

식물에서 유래한 식품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액상을 제외하면 모두 할랄이다. 그러나, 식품 공정에서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이 동일한 공장, 동일한 설비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있어, 오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세척 절차가 적용되고, 할랄 생산공정이 비할랄 공정과 철저히 분리된다면 오염은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동물성·기능성 첨가물은 식물성 식품을 가공할 때 첨가되면 안 된다. 이러한 고의적인 하람 성분의 첨가는 식물성 제품을 하람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성 제품의 할랄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공 보조제와 제조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5)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은 할랄 식품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다. 식물성 제품이 하람 성분으로 오염됐거나, 취하게 하는 물질을 포함하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젤라틴과 글리세린

젤라틴은 많은 식품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젤라틴의 경우 다호브 방식의 도축으로 획득했을 때는 할랄,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람이 된다. 그리고, 제품 라벨에 젤라틴 원료 동물 출처 표기가 없을 때는 하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성분으로 간주 된다. 젤라틴의 일반적인 원료는 돼지 껍질, 소가죽, 소뼈, 그리고 어류 피부와 비늘이다. 글리세린은 식품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이다. 동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슬림들은 글리세린이 포함된 제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에는 팜유나 기타 식물성 기름에서 얻은 식물성 글리세린이 할랄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코셔 제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효소와 알코올

효소는 식품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치즈 산업과 전분 산업에서 활용된다.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효소는 동물성이었으나, 현재는 미생물 기반 효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생물 효소를 사용하여 생산된 치즈, 유청 분말, 유당, 유청 단백질 농축물 및 분리 단백질 제품은 다른 할랄 요건이 충족되는 한 할랄이다. 반면에, 혼합 효소, 동물 유래 효소를 사용한 제품은 하람이 된다. 무슬림은 소량이라도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와인과 맥주와 같은 알코올이 향미를 위해 조리나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할랄 제품에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첨가되면 그 제품은 하람이 된다. 알코올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식품 원료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일에도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분리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은 식품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데 용매나 화학물질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 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알코올을 사용한 식품 제조나 알코올을 활용한 식품 원료는 알코올이 증발하는 한 할랄로 인정한다. 율법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식품 원료에 잔류 또는 기술적 알코올⁸⁾이 0.5%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 제품에 대한 허용 기준은 국가나 집단에 따라 다르다.⁹⁾

■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향료와 향미제¹⁰⁾

육류와 가금류 제품은 기본적인 식품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비육류 식품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된다. 미국을 비롯한 기타 선진 국가들의 식품산업에서 동물의 모든 부분을 식품 제조를 위해 활용한다. 도축된 육류에 있어 선호도가 낮은 부위와 부산물은 분말로 가공되어 수프나 스낵의 향미제와 같은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정제되어 쇼트닝이나 유화제 등 여러 기능성 식품 재료로 활용된다. 향료와 향미제는 많은 식품 제조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단일한 성분에서 유래한 향미제 외에도 100개가 넘는 다양한 원료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미생물, 식물, 광물, 석유, 동물 또는 합성 원료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생성된다. 할랄식품 제조를 위해서는,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향료, 혼합물, 비공개 조성물이 할랄이며 의심스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6) 위생

할랄 제품을 생산할 때는 가능한 모든 오염원의 제거가 중요하다. 적합한 생산계획과 함께 철저한 생산공정 및 기기와 장비의 세척·살균을 통해 할랄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비육류 제품의 경우, 장비를 세척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청소 기준이 적합하다. 그러나, 세척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동물성 지방이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할랄식품 생산에 있어 전복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인증 기준은 생산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육류와 가금류, 어류·해산물, 작물·채소, 우유와 달걀과 식품 첨가물에 관한 인증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면 전복에 적합한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도축의 경우 전복에는 할랄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 없으며, 우유·달걀, 그리고 식품 첨가물 또한 인증 관련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작물·채소와 어류·해산물에 대한 할랄 인증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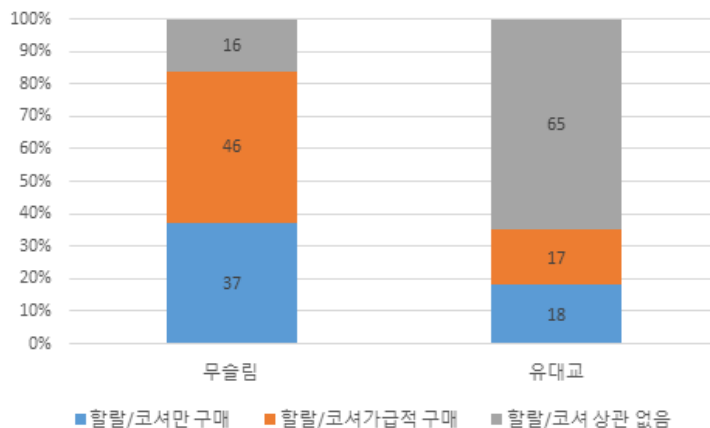
8) 기술적 알코올은 공업적, 의학적, 실험적 용도로 사용되는 알코올을 의미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음용용 알코올과 달리 소독제, 용매, 연료 등으로 활용된다.

9) 미국 이슬람 식품영양위원회(INANCA)의 경우, 0.1%를 불순물 수준으로 허용한다.

10) 향미제는 사료의 풍미를 개선하고, 기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감미료·향미료 등을 향미제라고 한다.

론, 생산 농·어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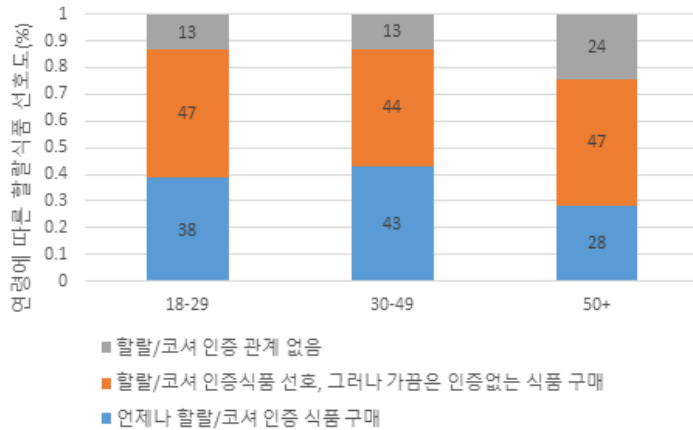
[그림 2-13]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믿는 대상자에게 식료품을 구매할 때 할랄식품 혹은 코셔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묻은 결과이다. 할랄과 코셔 인증을 받은 식품만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무슬림(37%)이 유대교(18%)보다 2배 이상 높다. 할랄과 코셔 식품 구매를 하려는 성향의 경우에는 무슬림이 83%로 무슬림의 식품 구매에 있어 할랄 인증은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세계 무슬림 인구는 17억(10년) 명에서 20억(20년) 명으로 지난 10년간 21% 증가했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가 증가한 세계 인구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슬림의 연령 구조는 젊고 중위 연령이 낮다. 세계 무슬림 인구의 중위 연령은 23세(24년)인데,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은 28세(24년)이다.



[그림 2-13] 식료품 구매 시 할랄에 관한 선호도

출처 : Institute for Social Policy and Understanding (2022)

[그림 2-14]는 무슬림의 나이에 따른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구매 선호에 대한 것이다. 18~29세의 무슬림의 38%가 할랄 인증 식품 구매, 47%가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이것은 해당 연령층의 85%가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50세 이상의 무슬림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종교적 가치에 따라 인증이라는 산업적 방법을 거친 식품에 대한 분명한 구매 의사를 가진 젊은 연령대가 많은 인구 집단은 규모화한 소비시장이다.



[그림 2-14] 무슬림 나이에 따른 할랄식품 선호도
출처 : Institute for Social Policy and Understanding (2022)

3. 소결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산업적 수단인 할랄

모든 종교는 유일신을 믿으며 자신의 종교가 제공하는 경전을 통해 삶의 진리를 찾고 교리를 좇는다. 할랄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 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생활방식 전반에 적용된다. 또한, 생활에 제공되는 모든 제품·서비스를 단일한 신의 가르침에 따라 허락된 것을 좇는다. 무슬림은 할랄과 하람을 구분하여 삶 전체에 걸친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해당 지침을 지킨다. 할랄은 단순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산업적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삶의 일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할랄식품 산업은 가공식품, 육류, 유제품, 음료 등 제조·가공을 통한 최종 제품은 물론, 포장재, 조미료, 식품 첨가물까지도 할랄 인증을 위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슬람 율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인증을 통해 생산된 할랄식품은 확실한 수요를 통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 규모화된 소비가 가능한 할랄식품의 인증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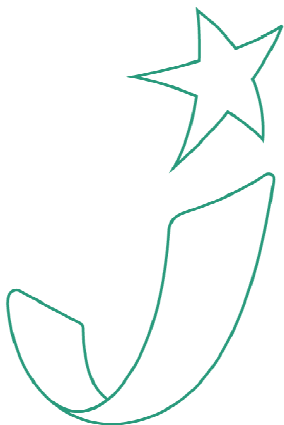
할랄 기준에 따른 인증획득을 위해 식품기업들은 생산설비를 조성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따른 운영을 통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할랄 인증의 목적은 무슬림 소비자의 신앙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할랄 인증은 국가마다 다른 인증 기준을 갖고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①원료 적합성, ②할랄 기준에 의한 생산과 가공 공정, ③할랄 기준에 의해 조성된 생산·가공 현장 ④할랄 기준에 따른 생산·가공 인력, ⑤인증 기준 적합성 판별 후 인증서 발급·갱신으로 볼 수 있다. 할랄식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오염원의 제거와 확인이다.



제3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및 환경

1. 할랄식품 산업 현황
2.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3.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환경 분석
4. 소결



제3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및 환경

1. 할랄식품 산업 현황

가. 할랄식품 현황

할랄식품 현황 제시에 있어서 할랄 인증획득과 제품생산 사례를 제시한다. 인증을 위한 원료 수급·공정 조성·환경 관리와 제품생산의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재정·인력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위주의 사례를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다소 제한적인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 할랄 인증획득 식품 기업 사례를 제2절에 첨부한다.

1) 국내 사례

우리나라는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할랄식품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할랄 인증 제품개발, 전용 수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을 노력하고 있다. 할랄식품 수출액은 2021년 5.1억 달러(21년)에서 8.9억 달러(23년)로 무려 76.4%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표 3-1]에서와 같이 곡물 및 빵류의 수출액이 116.5%가 증가했는데, 이는 ‘불닭볶음면(삼양)’ 등 라면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할랄식품 인증·생산 및 수출기업으로는 삼양, CJ제일제당, 풀무원, SPC, 농심, 오투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업들은 자사의 대표적인 생산 제품의 할랄 인증획득을 통해 무슬림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삼양은 할랄식품 산업 확장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매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소비 수요가 많으며 할랄 인증획득 후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할랄 전용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제품의 포장에 있어서 현지인의 문화적 감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전통 식품인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을 할랄식품 시장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전파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의 선호와 할랄 기준을 반영한 고추장 제품을 개발하여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대표 식품인 ‘비비고 김치’와 ‘비비고 고추장’은

말레이시아와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 현지 유통망에 진입하여 무슬림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할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센터와 할랄식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 국내 할랄식품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품목 코드	구분(HS류)		수출액			증감률 (‘23/’22)
	품목명	총제품수	2,021	2,022	2,023	
.	계	826	509,190	522,583	898,275	71.89
4	낙농품·조란·천연	13	1,926	2,886	1,909	-33.85
8	과실·견과류	1	1,116	1,265	1,040	-17.79
9	커피·향신료	2	4,847	4,537	411	-90.94
11	밀가루·전분	3	14,880	10,916	13,120	20.19
12	채유용종자·인삼	2	17,450	15,233	274	-98.20
13	식물성 엑스	11	35,632	52,625	32,560	-38.13
15	동식물성유지	54	384	450	7,979	1,673.11
16	육·어류 조제품	25	3,832	4,550	7,375	62.09
17	당류와 설탕과자	125	41,411	49,691	73,222	47.35
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빵류	196	238,017	208,853	452,194	116.51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67	21,747	18,772	38,984	107.67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181	63,627	74,712	112,876	51.08
22	음료·주류·식초	45	1,536	11,540	11,642	0.88
28	무기화합물	1	3,180	3,565	-	-100
29	유기화합물	81	56,829	60,145	142,650	137.18
32	염료·안료·페인트 ·잉크	5	1,234	1,218	-	-100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14	1,542	1,625	2,039	25.48

출처 : 김진·이진성 (2025)

풀무원은 식물성 기반 식품을 생산하여 무슬림 소비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다. 수출 품목으로는 두부, 식물성 만두, 비건 라면 등이 있고, 하람으로 분류되는 동물성 성분, 알코올 등이 제거된 후 말레이시아, UAE 등에 수출하고 있다. SPC그룹은 최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 제빵 공장을 준공하였고 공장은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SPC삼립은 수출용 할랄 인증 제품생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SPC삼립은 아세안 법인을 설립하고 조호르주 생산센터를 종성하고 동남아·중동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그림 3-1] 풀무원 할랄 인증 생라면

[그림 3-2] SPC그룹 말레이시아 제빵 공장

출처 : 좌 : 풀무원 (2013), 우 : 시사HN (2025)

농심은 2011년 부산에 할랄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했고, ‘할랄 신라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에 수출되고 있고, 신라면 외에도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 오투기는 이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 시장 공략 등 세계화에 주력하면서 베트남 공장에서 할랄 인증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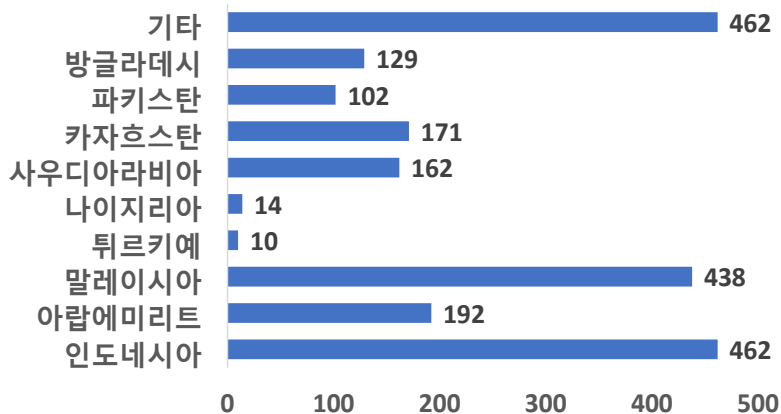
[그림 3-3] 농심 할랄 신라면

[그림 3-4] 오투기 베트남 공장 할랄 인증생산

출처 : 좌 : 매일경제 (2023), 우 : THE GURU (2025)

그러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할랄 인증과 생산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사업적 성장이 쉽지 않다. 이에 특정 품목(소스, 건강식품, 한과 등)에 집중하여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힘쓰고 있다. 할랄식품 산업 확장에 기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창업 지원금, 해외 마케팅 컨설팅, 수출 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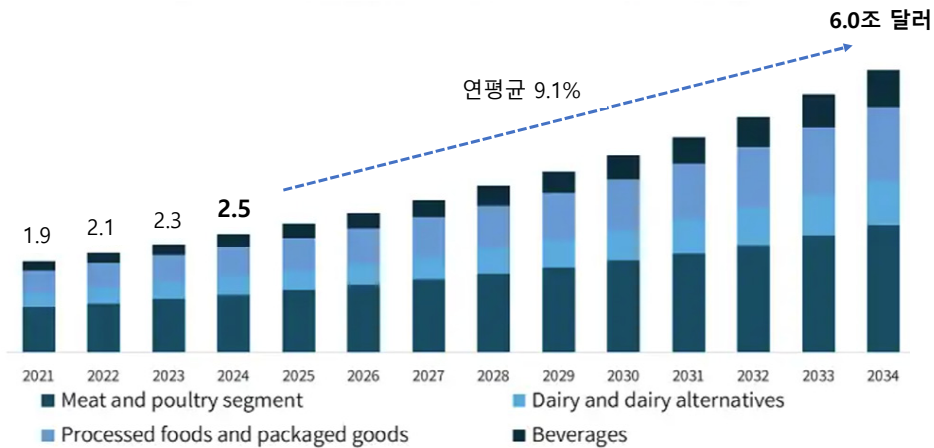
[그림 3-5] 할랄식품 주요 수출국에 대한 업체 수 현황

출처 : 김진·이진성 (2025)

[그림 3-5]와 같이 국내 기업의 할랄식품 주요 수출국에 따른 기업체 수는 인도네시아와 기타로 구분된 기업의 수가 462개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중동 및 이슬람권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타로 분류된 국가와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개별 국가 단위로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수의 국가를 통합적으로 접근으로 상당한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해외 사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는 2.7~2.9조 달러(24년)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익의 50.2%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9.1%씩 성장을 예상하며 2034년에는 6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식품기업들의 할랄식품 분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네슬레는 대표적인 할랄식품기업으로 400여 개의 할랄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유니레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신흥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요 거점으로 마기(Maggi), 립톤(Lipton) 등 다양한 브랜드의 할랄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3-6]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규모

출처 : Kiran Pulidindi (2024)

나. 할랄식품 인증 환경

국가마다 자국에 공급되는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관습법과 법률 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식품 소비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인증·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코셔¹¹⁾ 등 해외 식품인증 및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¹²⁾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할랄의 경우,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중동 순방 이후 활발한 시작을 보였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 식품단지 조성이 종교계와 지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할랄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할랄식품과 지역 농가와 기업을 연계하고 할랄 인증 및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행정과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랄식품 인증은 한국식품연구원 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할랄 또는 비건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 11) 코셔푸드(Kosher food)는 유대인의 종교적 음식법인 카슈루트를 따른 식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를 금하고 도축한 고기의 피를 빼야 식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할랄식품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 12)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현대식 제조 공정을 마련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할랄 인증 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7개 기관으로 (사)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 (주)아이지씨인증원(IGC), (사)할랄협회(KOHAS), (주)인도네시아할랄인증센터(BIC HK), 한국할랄인증원(KHA)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는 국내 대표 이슬람 종교단체로 산하에 할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KMF 할랄 인증을 통해 국내 식품업체들의 대 이슬람권 수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1994년부터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MF할랄위원회는 할랄식품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 대만 THIDA, 태국 CICOT, 미국 IFANCA 등 수출 대상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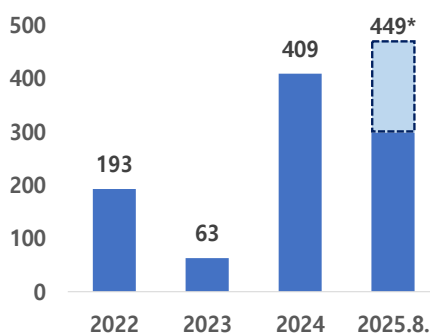
[그림 3-7] KMF할랄위원회 상호인정 해외 인증 기관
출처 : KMF할랄위원회 홈페이지

예를 들어, KMF할랄위원회를 통한 할랄식품 인증을 위해서는 먼저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급업체 정보와 생산공정 설명서, 원재료 성분 목록 등 서류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재료 및 성분 목록에 따라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의 목록을 확인, 특히 동물성 원료, 알코올,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물질의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그리고, 공급업체 정보를 통해 원재료 공급업체들의 할랄 인증서 유효성·신뢰도를 검토한다. 또한, 생산공정 설명서를 통해 제품의 생산 흐름도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과정인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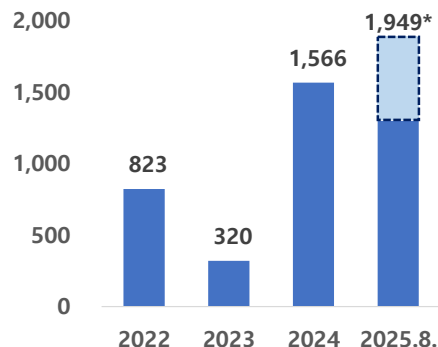
그리고, 서류 심사를 마친 다음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생산 시설 점검을 통해 생산공정이 할랄 기준에 맞게 하람 공정과 분리되어 있는지, 할랄 제품과 하람 간의 교차 오염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적합한 생산 시설의 청결 상태와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재료 보관 상태 확인을 통해 할랄 원료와 하랍의 분리 보관 상태인지에 관한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서류 심사에서 제출한 생산공정 설명서와 실제 공정이 일치하는지, 할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 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파프와 위원회(Fatwa Committee 등)¹³⁾가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현장 실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할랄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6개월마다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할랄 생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한다. KMF 할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할랄 인증업체 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8월까지 29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할랄 인증 품목 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추정치는 1,949개로 추정된다.



[그림 3-8] 할랄 인증업체 수(개)



[그림 3-9] 할랄 인증 품목 수(개)

주 : 2025년은 1~8개월의 월평균을 이용한 추정치(*)

출처 : KMF할랄위원회 DB

[표 3-2]에 따라 할랄 인증을 품목별로 구분하면, 2022~2025년 사이 식품이 3,090개 (77.1%)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첨가물이 6.7%, 건강기능식품 6.1%, 기타 4.4%, 화학품 3.5%로 나타났다. 식품의 범주를 확대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첨가물까지 합한 경우, 89.9%에 달해 식품 분야는 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파프와 위원회(Fatwa Committee)는 이슬람 율법에 관한 종교적 견해나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표 3-2] 할랄 품목별 인증 현황

구분	식품	의약품	화학품	식품 첨가물	건강기 능식품	화장품	기타	합계
2022	576	6	51	88	71	3	28	823
	70.0%	0.7%	6.2%	10.7%	8.6%	0.4%	3.4%	100.0%
2023	250	-	17	15	23	-	15	320
	78.1%	0.0%	5.3%	4.7%	7.2%	0.0%	4.7%	100.0%
2024	1,284	4	17	79	79	50	53	1,566
	82.0%	0.3%	1.1%	5.0%	5.0%	3.2%	3.4%	100.0%
2025.8	980	4	56	87	72	21	79	1,299
	75.4%	0.3%	4.3%	6.7%	5.5%	1.6%	6.1%	100.0%
누 적	합계	3,090	14	141	269	245	175	4,008
	비중	77.1%	0.3%	3.5%	6.7%	6.1%	4.4%	100.0%

출처 : KMF할랄위원회 DB

2.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현황

가. 할랄식품 현황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액은 47백만(23년)달러에서 67백만(24년)달러로 43.6%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 [표 3-3]에서 보듯이 2024년 기준 ‘곡물·곡분의 주제품과빵류(HS 21)’의 점유율이 40.3%이며 전년 대비 성장률도 97.1%로 라면류의 성장이 도드라졌다. ‘유기화합물(HS 29)’과 ‘기타의 조제식료품(HS 21)’ 등 할랄식품에서도 원료 산업에 대한 비중을 보면, 2022년 유기화합물은 22.3%를 점유해 전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기타의 조제식료품(HS 21)’은 점유가 낮게 나타났다.

14)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김진·이현성(2025)의 연구에서 구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2024년 최종 343개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의 1,861개 제품을 정량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17개의 할랄식품 수출 품목(HS CODE)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협력 기구의 주요 수출국가로 제한했다. 분석 방법의 한계로는 일반식품 수출도 같이 집계될 수 있으며 모든 국가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표 3-3]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현황

(단위 : 달러)

구분(HS류)		2023년		2024년		증감률 (‘24/’23)
코드	품목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4	낙농품·조란·천연	3	0.0%	-	-	-
08	과실·견과류	419,779	0.9%	369,010	0.5%	-12.1%
09	커피·향신료	-	0.0%	-	-	-
11	밀가루·전분	3,795,250	8.1%	4,295,815	6.4%	13.2%
12	채유용종자·인삼	26,789	0.1%	993,616	1.5%	3609.0%
13	식물성 엑스	-	0.0%	-	-	-
15	동식물성유지	3,333,330	7.1%	6,390,701	9.5%	91.7%
16	육·어류 조제품	89	0.0%	216	0.0%	142.7%
17	당류와 설탕과자	1,717,146	3.7%	2,668,539	4.0%	55.4%
19	곡물·곡분의 주제품과빵류	13,812,740	29.4%	27,220,190	40.3%	97.1%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407,036	0.9%	424,546	0.6%	4.3%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1,006,552	2.1%	1,216,340	1.8%	20.8%
22	음료·주류·식초	41,743	0.1%	141,813	0.2%	239.7%
28	무기화합물	7,294,561	15.5%	6,661,861	9.9%	-8.7%
29	유기화합물	12,226,442	26.0%	15,083,448	22.3%	23.4%
32	염료·안료·페인트·잉크	2,788,082	5.9%	1,962,398	2.9%	-29.6%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146,471	0.3%	108,170	0.2%	-26.1%
합 계		47,016,013	100.0%	67,536,663	100.0%	43.6%

자료 : k-stat 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표 3-4]처럼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2024년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30백만 달러의 수출액과 45.3%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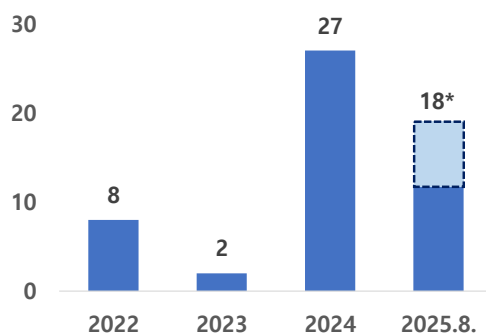
[표 3-4]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수출 국가별 현황

(단위 : 달러)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24/’2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말레이시아	20,863,846	44.4%	30,604,033	45.3%	46.7%
아랍에미리트	8,496,478	18.1%	14,143,806	20.9%	66.5%
인도네시아	6,700,807	14.3%	8,999,216	13.3%	34.3%
사우디아라비아	4,637,119	9.9%	7,681,020	11.4%	65.6%
방글라데시	1,586,146	3.4%	3,655,617	5.4%	130.5%
파키스탄	4,712,096	10.0%	2,351,848	3.5%	-50.1%
카자흐스탄	19,521	0.0%	101,123	0.1%	418.0%
합 계	47,016,013	100.0%	67,536,663	100.0%	43.6%

자료 : k-stat 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20.9%), 인도네시아(13.3%), 사우디아라비아(11.4%), 방글라데시(5.4%), 카자흐스탄(0.1%) 순으로 파악된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수출액이 작은 국가를 제외했을 때 방글라데시가 전년 대비 1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66.5%), 사우디아라비아(65.6%) 등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였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년 대비 50.1%가 감소하였다. [그림 3-10]처럼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업체 수는 2024년 27개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5년 8월까지 12개 업체가 등록되었다. 또한, 지역의 할랄 인증 누적은 272개(22~24년)이다.



[그림 3-10]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인증업체 수(개)
주 : 2025년은 1~8개월의 월평균을 이용한 추정치(*)
출처 : KMF할랄위원회 DB

본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8개(추정치)의 식품기업 중 2 곳을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해당 기업의 할랄 인증 식품 생산공정을 확인하고, 할랄 인증획득과 식품생산에 있어서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창○○식품 : 할랄 인증 춘장 생산

순창○○식품은 순창군에 위치하며 장류를 주로 생산하는 전문 제조 기업으로 재래식 콩된장, 쌈장, 춘장 등 다양한 발효 식품을 생산한다. 2010년 설립 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기술 경쟁력과 함께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류 제품을 생산했다.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18명(25년)으로 소규모 식품 제조 기업임에도 할랄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면서 직접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한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획득한 춘장의 경우,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를 생산하여 국내 수출기업(삼양)을 통해 매출을 올린다.



[그림 3-11] 순창○○식품 원물



[그림 3-12] 할랄 인증 원물 가공 공정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규모가 크지 않은 식품기업으로써 할랄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자체 역량만으로는 할랄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국내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도 원인이지만, 인증을 비롯한 제품 판매를 위한 할랄식품 소비시장에 대한 정보와 함께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3-13] 순창○○식품 춘장 가공



[그림 3-14] 할랄 인증 춘장 포장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따라서 대부분의 할랄식품 제조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는 사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소규모 식품기업의 할랄 식품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소비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접 해외 직판을 하거나,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바이오 : 할랄 인증 콤부차 생산

○○바이오는 콤부차를 제조하는 회사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HACCP 인증과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바이오는 프레시코라는 유통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자사에서 제조한 콤부차를 수출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할랄 시장에서 콤부차의 점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할랄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인하기 위한 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그림 3-15] ○○바이오 전경



[그림 3-16] 할랄 인증 콤부차 원료 혼합 공정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바이오의 콤부차는 액상 형태로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되는데 현지에서는 분말 형태의 콤부차가 시장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에서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안내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진행되었다. 콤부차 생산을 위한 원물은 국내산을 쓰고 있으며 이 또한 할랄 인증 기준에 따라야 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판매 제품의 단가를 경제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수입산 원물을 주로 사용하지만, 국내산 농산물의 할랄 인증과 함께 원물로의 활용을 원하더라도 정책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림 3-17] 할랄 인증 콤부차 제조 공정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그림 3-18] 할랄 인증 콤부차 포장 공정

나. 할랄식품 인증 환경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증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해외 식품인증 지원과 함께 할랄 인증에 있어서 5대 전략을 통해 인증획득의 효율성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 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통해 전북에 있는 식품 기업들의 할랄식품 시장 진입과 인증획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3-5] 전북자치도 할랄 품목별 인증 현황

(단위 : 개)

구분		식품	의약품	화학품	식품 첨가물	건강기 능식품	화장품	기타	합계
2022		22	-	-	3	-	-	1	26
2023		12	-	6	-	-	-	-	18
2024		134	-	-	6	10	-	2	152
2025.8		74	-	-	2	-	-	-	76
누 적	합계	242	-	6	11	10	-	3	272
	비중	89.0%	-	2.2%	4.0%	3.7%	-	1.1%	100.0%

출처 : KMF할랄위원회 DB

[표 3-5]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할랄 인증은 품목별로 식품이 242개(8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 첨가물 11개(4.0%), 건강기능식품 10개(3.7%), 화학품 6개(2.2%)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 식품 기업의 할랄 인증획득의 89.0%가 식품인 것을 보면 기업들의 지역 할랄 인증 자원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림 3-19] 한국식품연구원 할랄 인증 업무협약
출처 : 좌 : 식품저널 (2019), 우 : 대한급식신문 (2021)



[그림 3-20] 식품분석센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5대 전략은 할랄연구실, 수출기업 기술지원, 수출 정보 제공, 인력 양성, 해외 인증 등록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 할랄연구실 운영

할랄연구실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랄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지원한다. 또한, 하람으로 분류되는 에탄올 및 돼지 성분 분석에 대한 ISO 17025¹⁵⁾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들의 생산 제품에 대한 하람 성분 분석에 대한 지원과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 수출기업 기술지원

국내 식품 기업의 가공·공정 기술지원, 감각 평가, 해외 소비자 특성 조사, 인증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기업 지원을

15) ISO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을 의미한다.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해 원료 성별, 가공 공정 기술, 시제품 개발, 관능 평가, 소비자 수용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만들어진 시제품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고 할랄 인증과 함께 코셔 인증도 병행하고 있다.

■ 수출 정보 제공

할랄식품 생산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할랄·코셔·비건 등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인력 양성

국내 식품 기업의 제조·유통 등에 종사하는 해외 식품인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상자료를 통한 교육과 KMF할랄위원회와 연계하여 할랄 실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해외 인증 등록지원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의 취득과 연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해 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식품에 대한 해외 신뢰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다.

3.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환경 분석

가. 할랄식품 산업 SWOT 분석

1) 강점

전북자치도는 2015년 한·UAE 간 할랄식품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할랄 식품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것만큼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비롯한 국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있는 지역이다.

■ 할랄식품 개발·제조(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연구원)

전북자치도 내 혹은 역외 식품 기업은 제품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 개발과 함께 식품산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랄식품 개발에 필요한 환경과 인증,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으며, 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생산과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2015년 할랄 식품단지 조성이 철회된 후 할랄식품을 산업적 규모로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랄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의 존재는 할랄식품 산업 성장 기반 확립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 할랄식품 인증·판로(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전북자치도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산업 기술 기반 향상을 위해 기능성, 신소재 발굴과 신공정 연구, 식품의 저장·안전성 기술 등의 연구를 통해 국내 식품과학 기술 연구를 주도하며, 국가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식품연구원 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국내 할랄 식품단지 조성 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랄식품에 대한 인증과 기업 지원 및 수출 정보를 할랄 식품기업에게 제공했다. 특히, 센터 내에 있는 할랄연구실은 할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소재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통한 분석으로 할랄식품 내 있을지 모르는 하람성분을 분석한다. 국내 식품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할랄 인증까지 할랄식품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정보·서비스를 공급했다.

■ 할랄식품 연구개발(산학연 연계 잠재력)

2015년 한·UAE의 할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전북대학교는 국가 식품산업 발전 방향성에 맞추어 2016년 ‘할랄산업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하여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으로 해외 할랄 인증 등록을 지원했다. 그러나, 할랄식품 단지 철회와 할랄 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2019년 폐지되었다. 비록 관련 연구를 중단했더라도,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의 존재와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해외 할랄 인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할랄 인증을 통해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은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정책적 추진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

2) 약점

전북자치도는 농도라 불리면서 국가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왔지만, 농업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식품산업이 지역 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 소규모 할랄식품기업(생산의 영세화)

식품산업은 제조·가공 분야에 있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생산의 규모화 없이는 식품 기업 성장에 제한이 있다. 지금처럼 지방의 인력 부족과 함께 제조업 취업에 대한 기피 현상은 소규모 식품 기업들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산업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전북자치도 내 농식품기업의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제조 공정 또한 단순 가공에 그치면서 생산되는 식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점차 변화하는 소비 시장의 행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의 식품산업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 할랄 식품인증 미비(인증 지원책 부족)

할랄식품 산업은 단순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식품 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원료, 제조 환경, 가공 공정, 제품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할랄 기준에 근거한 인증을 획득해야 할랄식품으로서의 시장 진입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할랄식품을 소비하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으로 인해 기업의 인증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한다. 예를 들어, 전북자치도 통상진흥원이 도 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0만(23년)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할랄 인증의 경우 품목당 비용의 차이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할랄 식품인증 지원책의 보강이 필요하다.

■ 할랄식품 산업 인력 부족

식품산업의 특성상 제조 과정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에 대한 기피와 함께 지역 인구 감소는 전북자치도 식품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식품 제조 기업은 새로운 산업 형태(할랄식품 산업)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다. 지역에서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식품 제조 현장에 종사할 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

3) 기회

할랄 식품산업은 할랄 산업 분야의 하나로 비교적 고정적인 소비층이 보장되는 규모화된 시장이다.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4에 달하는 20억(25년) 명에 달하는 커다란 시장이다. 더불어 할랄 인증이 갖고 있는 위생과 식품 안전에 대한 정체성은 식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쉽게 유인한다.

■ 할랄식품의 위생과 안전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맞는 식품 제조를 위해 기업들은 나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거나 생산 국가의 위생·안전 기준에 맞춘 제품을 개발한다. 할랄식품은 종교적 경전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산업적 형태에 적용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했다. 식품의 경우 무슬림에게 허락된 원료를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을 거쳐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산된 할랄 인증 식품은 소비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다.

■ 할랄 산업의 다양성

무슬림은 경전에 따라 허락된 것을 활용하며 산다. 할랄은 식품을 시작으로, 금융, 여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적용되면서 무슬림의 삶을 지탱한다. 할랄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면서 쌓은 할랄과 인증에 관한 지식은 할랄이 적용된 산업의 분야를 확장하면서 규모화가 가능하게 된다.

■ 무슬림 인구의 증가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면서 그 구성원 또한 젊은 층이 많다. 2060년까지 무슬림 인구가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할랄식품 산업의 규모도 3조(25년) 달러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시장의 크기와 함께 할랄 인증의 중요성도 커지고, 할랄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도 커질 것이다.

4) 위기

점차 성장하는 할랄 시장에서 전복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슬림에 관한 인식, 할랄 시장 정보의 부족,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인증 기준에 대한 대응이다.

■ 무슬림에 대한 편견

2015년 한·UAE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할랄식품단지 조성 실패는 당시 기독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됐던 테러로 인해 세계적인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품 기업의 할랄 인증 및 식품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와 할랄을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지역의 신산업 발굴과 발전 기회를 놓친 것이다.

■ 할랄 식품시장 정보의 부족

식품 기업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시작으로 소재를 찾고,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함께 시장에 내놓을 식품을 생산한다. 그 모든 단계의 시작에는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나이, 소득, 선호도 등)가 중요하다. 이처럼 할랄 시장 정보 없이는 지역 할랄식품 산업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 할랄 인증 기준 차이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의 할랄식품 선호에 따라 시장이 규모화되었지만, 할랄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출시장 진입을 위해 품목에 따른 인증을 받더라도 인증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중복인증을 해야 한다. 물론, 현재는 할랄식품 인증 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표준화가 안착할 때까지는 식품 기업은 할랄 인증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림 3-21] 전복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환경 분석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나. 할랄식품 산업 육성 전략(안)

1) 지역 공공기관 연계 할랄 인증 확대 및 식품개발(SO전략)

■ 할랄식품 연구개발(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할랄식품 개발을 위한 원료발굴, 기술지원을 통한 시제품 개발,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패키징에 대한 컨설팅, 할랄 제품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와 같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은 지역 할랄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 할랄식품 인증·수출(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협력)

한국식품연구원 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할랄·코셔 등의 식품인증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식품기업의 할랄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함께 할랄연구실을 통한 하람성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할랄식품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전북형 할랄식품 소재 발굴과 인증 및 제도가공에 관련된 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 전북산 농산물 할랄 인증 강화

할랄식품 산업 성장에 있어 인증이라는 과정은 식품개발의 시작에서부터 제품생산을 거쳐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단계이다. 원료, 가공, 제조공정, 제조 현장, 제품, 패키징을 포함하는 모든 단계마다 할랄로 정의된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할랄식품 산업을 규모화된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면, 식품의 원료 단계부터 할랄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효율적인 식품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2)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할랄 식품소재 발굴(ST전략)

■ 극단적 무슬림과 할랄 사이의 인식 분리

할랄은 이슬람교 선지자의 말을 담은 경전에 의해 신으로부터 허락된 걸 먹고(식품),

보고(관광), 생활(금융) 등을 행하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인증의 발단이 종교적 가르침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랄과 이슬람교 혹은 무슬림을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그 때문에 극단적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로 인한 이미지 손실은 할랄을 포함한 외국인 무슬림에 대한 혐오로 발전했다. 그러나, 무슬림 시장의 규모와 산업적 성장을 고려한다면 할랄과 무슬림에 대해 겹친 인식을 문화적 접근을 활용하여 분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 무슬림과 전주 성원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접근은 할랄식품 산업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할랄 인증 식품소재 발굴

할랄식품은 신으로부터 허락된 먹는 것을 말한다. 신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 경전에 언급된 걸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성격에서부터 제조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할랄 인증에 필요한 식품소재 발굴은 하람으로 분류되는, 허락받지 못한 것과 분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랄연구실과 같은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하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 그것이 할랄 인증의 시작이다. 전북산 농산물이 가진 기능성을 식품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가 향상된다면, 할랄식품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할랄 식품소재 발굴이 활성화할수록 지역 식품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산업은 발전할 것이다.

■ 식품 연구 기관 연계 할랄 인증 확대

전북자치도에는 식품기업을 위한 기술·장비 지원(국가식품클러스터), 인증·수출 정보 서비스 제공(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을 포함해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식품소재 발굴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3) 소규모 식품기업 지원과 인력 확보(WO전략)

■ 소규모 식품기업 할랄 식품개발 지원

전북자치도 식품기업의 절반 이상은 종사자 50인 이하의 소규모로 분류되는 식품기업이다. 인력의 부족과 함께 제조공정 고도화 미비로 인해 생산하는 식품은 단순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식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다 다양한 할랄 식품소재를 발굴하고 상품화할 수 있다.

■ 소규모 식품기업 할랄 인증 지원

할랄 인증은 품목별로 구분되어 획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식품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할랄식품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인증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은 식품기업은 할랄 인증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인증 과정에 대한 준비에 소모되는 인력과 노력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할랄 식품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거주 무슬림의 할랄식품 산업 인력 활용

할랄 인증 과정에서 원료에 대한 검열부터 생산과정에 대한 진단까지 이슬람 율법 학자를 포함한 할랄 인증 기관 인원들이 참여한다. 기존의 한국인 종사자들은 할랄식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인증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랄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거주 무슬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할랄 인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근무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무슬림 사이의 연대는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를 감소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지역 문화 자원 활용과 할랄 시장분석(WT전략)

■ 이슬람 문화 체험(전주 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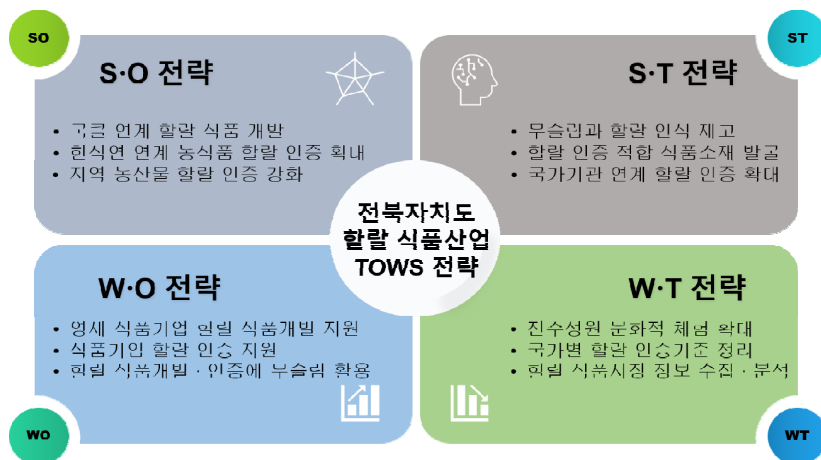
전북자치도 전주에는 전국 16개 달하는 이슬람 성원 중 하나가 있다. ‘전주 성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위한 종교적·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임해야 하는 예배와 기도, 신앙 교육, 그리고 종교적 행사를 포함해 무슬림의 종교성과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할랄식품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었던 무슬림에 대한 혐오는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인 성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무슬림 사이의 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이슬람 문화 행사 소개 등을 통해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 할랄 인증 기관별 기준 정리·분석

할랄 인증은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품목별로 다른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그런데, 품목별 인증은 인증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식품기업이 제품화와 인증획득을 통해 할랄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진출할 시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현재는 이슬람 협력 기구에 의해 표준화된 할랄 인증 기준을 발굴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이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식품기업들은 국가별로 다른 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관(연구원, 행정 등)이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정리·분석하여 식품기업에 제공한다면 효율적인 할랄 인증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 할랄 식품시장 정보 수집·제공

할랄 인증은 인증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며,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오히려 할랄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담보한다. 지역 식품기업이 활발하게 할랄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표로 삼는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연구 능력을 활용하여 전북자치도 식품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할랄 식품시장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2]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전략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4. 소결

우리나라의 할랄식품 산업의 성장은 현재까지 대기업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삼양, CJ제일제당, 풀무원, SPC, 농심, 오뚜기 등의 기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할랄 인증획득을 위한 원료, 가공, 생산, 포장 등의 공정들을 조성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할랄식품을 수출했다. 더불어, K-컬처로 분류되는 문화적 장치들과 결합하여 K-푸드를 시작으로 K-할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현지 무슬림의 기호에 맞도록 생산되어 공급된다.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고정적인 식품 소비 시장은 할랄식품 산업을 매력적인 육성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식품산업 다양성 확장의 기회는 전북자치도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진 않았다. 국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농업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집적화와 함께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식품소재 발굴에 대한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2015년에 조성되지 못한 할랄식품단지는 지역 식품산업 성장 기반의 확대를 가로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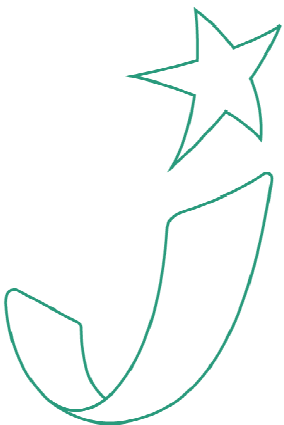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할랄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할랄 인증 확대와 식품개발, 무슬림에 대한 상호 문화적 이해, 소규모 식품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분야의 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 이슬람 문화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1.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방향



제4장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1.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가. 중장기 비전과 목표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성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와 지역 할랄 식품 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식품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할랄 식품 산업 발전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은 “**K-할랄, 글로벌 식품산업 선도**”라는 비전과 지역 할랄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무슬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목표로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을 검토하여 [그림 4-1]의 전략 체계를 도출하였다.

첫째, **할랄식품 산업과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할랄 인증 농산물과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원물을 확보하고, 할랄식품 소재 발굴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품목 다양성 확보와 할랄식품 시장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둘째, **할랄식품 산업 관련 주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할랄 식품 기업의 할랄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할랄식품 시장의 동향 정보와 지원 정책을 수집하여 수요기업에 배포하는 플랫폼 구축, 그리고 농식품 기업의 할랄식품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인 할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슬림과 할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실패의 원인인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할랄 외식산업 확대와 이슬람 문화제와 같은 상호 이해의 공간을 통해 감소시켜야 한다.

K-할랄, 글로벌 식품산업 선도



[그림 4-1] 전북자치도 할랄 식품산업 육성 체계

출처 : 연구진 작성 (2025)

나. 할랄과 지역 농업과의 연계

1) 할랄 인증 농산물 생산

■ 개념

할랄 인증 농산물 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할랄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함으로써 농식품 기업의 할랄식품 생산에 필요한 인증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랄식품이 갖는 위생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하여 신뢰받는 식품 원물을 생산하여 제조 식품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인증 농산물 생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 추진 전략

첫째, **지역 농산물의 할랄식품 원물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다.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원물 생산은 농식품 기업의 인증획득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할랄식품 생산 기업의 원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무슬림 식품 소비시장 분석을 통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할랄 원료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공식품, 소스, 간편식 등 할랄 가공식품으로 연계하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2) 할랄식품 소재 발굴

■ 개념

할랄식품 소재 발굴은 무슬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허락’을 나타내는 할랄을 적용한 식품 원료를 발굴하는 것이다. 식품의 경우 그들의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제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할랄식품 시장 진입을 위해서 할랄 인증에 적합한 식품소재를 찾아야 한다.

■ 추진 전략

첫째,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화작물의 할랄 인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2024년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농식품 가공센터가 고창 복분지즙 등 4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강원자치도 대표 작물인 감자를 활용한 가공식품, 경상북도의 사과를 활용한 할랄 인증 사과잼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기능성을 가진 농산물의 식품소재와 함께 할랄 인증 검토**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은 원물로부터의 단순 가공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이 부족하다. 따라서 규모화된 할랄 시장을 목표로 기능성 할랄식품 소재를 발굴 후 제품화한다면 향상된 부가가치 식품을 통해 지역 농가와 농식품 기업이 활성화할 것이다.

다. 할랄식품 산업 관련 주체들의 활성화

1) 할랄 식품기업 인증 지원

■ 개념

할랄 식품기업의 인증 지원은 기업의 할랄 인증의 취득과 제조 현황 파악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 정책, 예산 등의 체계적 수립 필요성을 말한다.

■ 추진 전략

첫째, 할랄 식품기업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할랄 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할랄식품 인증은 일반 식품인증보다 복잡한 단계와 함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역의 소규모 농식품 기업은 인증의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할랄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할랄식품 제조·가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함께 율법에 근거한 할랄 인증과 산업적 적용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의 지역 식품기업 컨설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정보 수집과 적용이 쉽지만, 소규모 기업은 부족한 재정과 인력으로 할랄 인증의 취득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슬림 소비자를 이해하고 할랄 인증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2) 할랄 정보 플랫폼 구축

■ 개념

할랄 정보 플랫폼 구축은 국가별로 다른 할랄 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 국내 식품기업이 해당 국가 수출을 목표로 취득한 할랄 인증이 다른 국가의 인증 기준과 다를 경우 복수 인증에 관한 추가적 시간과 비용의 소모는 산업 발전 역량 약화와 직결된다. 규모화된 시장이 존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정보도 존재하지만, 막상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중요하다.

■ 추진 전략

첫째, **할랄식품 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할랄식품을 소비하는 국가들은 각각의 인증 기관을 설치하여 저마다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생산·수입식품의 할랄로서의 기준을 검증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기준과 절차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식품 기업 자체가 필요한 인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집된 정보를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할랄식품 인증과 관련한 수집된 정보의 체계화된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할랄 정보 플랫폼의 주요 역할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연결이다. 할랄 인증과 관련한 국가별 인증 기관의 절차, 기간, 비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함께 한 곳에 통합 관리하며, 정보가 필요한 수요 식품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할랄 인증 관련 정보를 최적화 하여 제공해야 한다.

3) 할랄식품 개발 지원

■ 개념

할랄식품 개발 지원은 지역이 농식품 기업과 공공기관(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할랄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할랄과 하람성분의 분석을 시작으로 식품으로서의 물성과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공정을 설계하고 할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 추진 전략

첫째, **할랄 전용 생산 공정 구축**은 할랄식품 생산을 위한 하람과의 분리, 위생적인 생산 환경, 할랄 인증 원료 확보를 위한 공정을 의미한다. 더불어 전문인력양성, 스마트 공정 지원과 HACCP 시스템 도입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할랄식품 생산 효율성 제고와 위생과 안전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원천 할랄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할랄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공급에 있어 할랄 기준을 적용한 생산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육류, 식품 첨가물 등에 관한 할랄 인증 체계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원천 인증 시스템은 하람으로 분류되는 동물성 원료의 원천적 배제를 가능케 하고 할랄 인증의 획득 가능성을 높인다.

라. 무슬림과 할랄에 대한 이해 공간 조성

1) 할랄 외식산업 확대

■ 개념

할랄 외식산업 확대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강하면서 대중적인 매개체일 수 있다. 지역에서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외식업의 활성화는 극단적 이슬람교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며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식품에 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할 것이다.

■ 추진 전략

첫째, **지역 할랄 식당을 통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할랄 식품산업을 산업적 목적을 위한 육성이 아닌 음식이라는 문화적 장치를 활용한 교류와 이해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인 요리사가 만드는 이국적인 맛과 할랄 음식이 갖는 역사적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예전에 있었던 할랄 식품단지 조성 실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한식의 할랄 표준화**를 통해 할랄 인증에 적합한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에게 K-할랄식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할랄 인증이 위생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준인 것을 강조하며, 현지화된 메뉴를 개발하여 내수 시장과 함께 식품 수출의 공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2) 이슬람 문화제 활성화

■ 개념

이슬람 문화제 활성화는 무슬림 모두가 이슬람 분리주의자가 아니듯 할랄의 정체성과 무슬림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할랄 식품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무슬림이 추구하는 할랄이 가진 정체성을 종교적 극단주의와 분리하며, 그들이 삶의 지표로써 따르는 경전을 왜곡하지 않고 이해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추진 전략

첫째, **예술·공예 작품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아랍 서예(Calligraphy), 전통 문양과 수공예품에 대한 전시를 통해 이슬람 문화가 가지는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대중에게 인식하게 하여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에 존재하는

전주 성원은 호남 지역의 유일한 이슬람 성원으로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전통 음악·공연 및 의상 체험**을 제공하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무슬림 공동체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야 한다. 수피 댄스(Sufi Dance)와 같은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이슬람 문화의 평등, 공동체성, 그리고 형제애 적인 측면을 전달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전통 의상에 관한 체험 제공을 통해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방향

가. 할랄식품 산업 육성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체계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식품 경제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방향성에 따른 핵심 전략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농업과 할랄식품 산업 간 연계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은 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간과할 수 없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물의 할랄 인증획득**은 식품기업의 할랄식품 생산과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농산물이 가지는 **기능성 작물을 식품 소재화**하여 제품화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과 식품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 할랄 식품기업 역량 강화 지원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식품기업의 할랄 인증 보유 개수가 품목별로 다양할수록 좋다. 따라서, **식품기업의 할랄 인증획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인증획득의 기준이 품목별로 다르고 인증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할랄 인증에 관한 정보의 집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할랄 인증 관련 정보를 집적화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식품 기업이 할랄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이 중요하다.

■ 문화자원을 통한 이슬람과 할랄에 대한 이해

할랄은 성문 자료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준을 의미하고 할랄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생산된 식품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치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슬림의 식문화에 대한 친근함을 제고할 수 있는 **할랄 외식산업을 장려**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이슬람 성원을 거점으로 문화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틈을 메울 필요가 있다.

나.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석을 통해 산업기반 조성 및 식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전략을 통해 할랄식품 산업이 발전할 경우, 후속 연구를 통해 식품산업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 할랄식품 소재 원물 공급 체계 확립

할랄식품은 원료 생산부터 인증획득을 위한 기준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 농가·가공기업·수출기업 사이의 연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농가의 경우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보존 및 확대하면서도 원료 단계부터 하람 요소의 배제,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할랄 인증 기준에 맞도록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기업 가공에 있어서 공정의 적합도와 수출기업의 목표 국가에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에 이르는 단계별 주체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할랄 데모데이(Demoday)¹⁶⁾ 활성화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할랄식품의 대외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와 함께 전북자치도가 주도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무

16) '데모데이'는 스타트업 혹은 소규모 기업이 개발한 할랄식품을 투자자, 할랄식품 산업 전문가, 언론 등에 공개하여 단순히 제품의 홍보가 목적이 아닌 투자 유치, 비즈니스 협업 관계 구축, 인력 확보 등의 기회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슬림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랄식품에 대한 관능 평가를 수행하거나 동남아 바이어 초청 정례 수출 상담회 혹은 무슬림 외국인 학생 참여 기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할랄식품의 개발→평가→수출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할랄식품 산업 전담 조직 구성

할랄식품 산업 육성은 관련 기관(연구·행정·기업 등)이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 개별 기관 단위의 지원만으로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북형 할랄식품 산업 전담 조직(가칭 ‘전북할랄식품센터’) 설립 또는 기존 기관 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 전담 조직이 역할은 ①할랄 인증 컨설팅 및 절차 지원, ②국가별 인증 기준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③할랄 시제품 개발·테스트베드 운영, ④농가·기업·수출기관 간 협력 체계 조정, ⑤동남아·중동 시장 정보 수집 및 수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공공기관, 대학 등)들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가정보원. (2017). 테러예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이슬람 문화 이해 가이드.
- 김동문. (2024). 한국 내 외국인 무슬림이주자 인구 추산에 관한 연구.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Muslim-Christian Encounter. pp. 7-52.
- 김은미. (2015). 할랄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 현황. 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pp. 12-24.
- 김진 외. (2025). 국내 할랄식품 수출 동향 및 주요 품목별 추이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36-46.
- 김철민. (2015).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제175호.
- 김형길 외. (2015). 제주지역 농식품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15-09.
- 김형준. (2017). 이슬람과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36권 제1호. pp. 253-294.
- 김형훈 외. (2025). 이슬람법적 관점에서의 할랄 규정 비교 분석: 말레이시아(JAKIM), 인도네시아(BPJPH), 싱가포르(MUIS), 이슬람협력기구(OIC/SMIIC),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할랄 규정의 원재료 분석을 중심으로.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58-65.
- 박기환. (2015). 할랄 농식품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104호.
- 박수진. (2017).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소비자의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이용 실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1호. pp. 1-15.
- 배민식 외. (2015). 세계 할랄(Halal) 식품시장 최근 동향과 진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54호.
- 안상돈 외. (2014). 수출 틈새시장으로서의 할랄 식품시장과 축산업계 진출방안. NHERI 리포트 제241호.
- 이상미 외. (2017). 고객의 심리적 거리가 할랄푸드 인식과 할랄푸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4호. pp. 189-205.
- 이소현. (2023). 국내 무슬림이주민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경관과 지리 제33권 제4호. pp. 28-38.

- 이슬이 외. (2025). 국내 할랄연구실 현황: 할랄인증을 위한 과학적 검증과 발전 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47-57.
- 이윤정. (2023). 무슬림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지 제34권 2호. pp. 289-311.
- 이현성 외. (2025).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상호인정 현황과 과제.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13-22.
- 장정민.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할랄 푸드 소비자 인식연구. 외식경영연구 제26권 제5호. pp. 53-72.
- 조영찬. (2025). 국내 할랄 외식업의 현황 및 시장 정착 가능성.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3-12.
- 진구복. (2016). 축산식품의 할랄인증 전략. 오리마을 4월호.
- 최영민. (2025). K-Halal Food의 해외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연구: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를 중심으로. 식품과학과 산업 제58권 제1호. pp. 23-35.
- 한국무역협회. (2025). <https://www.kita.net/>
- 한아람 외. (2016). 한국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식품 시장과 할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식품과학과 산업 제49권 제1호. pp. 87-93.
- 황윤재 외. (2015). 국내 할랄식품 시장 실태와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11.
- 홍원수. (2015). 할랄식품 산업과 할랄 인증. 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 KMF할랄위원회. (2025). <https://kmfhalal.org/>

Strategic Roadmaps for Promoting Halal Food Industry in Jeonbuk State

Sungtae Eun · Byung Hoon Lee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Background and Goals

-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the halal food industry in Jeonbuk, fundamental research on strategic roadmaps is neede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steady increase in the Muslim population and the corresponding growth in halal food demand.
- In lin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global halal food market, which serves nearly one quarter of the world's population, Jeonbuk State should enhance public awareness of religious identity and adopt an industry-driven approach to halal foo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In 2015,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lan to establish a halal food complex within the National Food Cluster in Iksan was shelved,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advancing the halal food initiative based on rigorous analysis of cultural and industrial implications.
- This study aims to build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of the halal food industry by elucidating key concepts embedded in Islamic and Muslim identity and halal that underlie the promotion of the halal food industry.
- Additionally,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Jeonbuk's halal food industry and

analyzing its operating environment,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halal food certification, production, and market access in the region.

■ Research Scope and Methods

- This study covers Jeonbuk State and its 14 cities and counties from 2015 to 2024.
-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omotional roadmaps for Jeonbuk's halal food industry, we employed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analyses, and expert advisory 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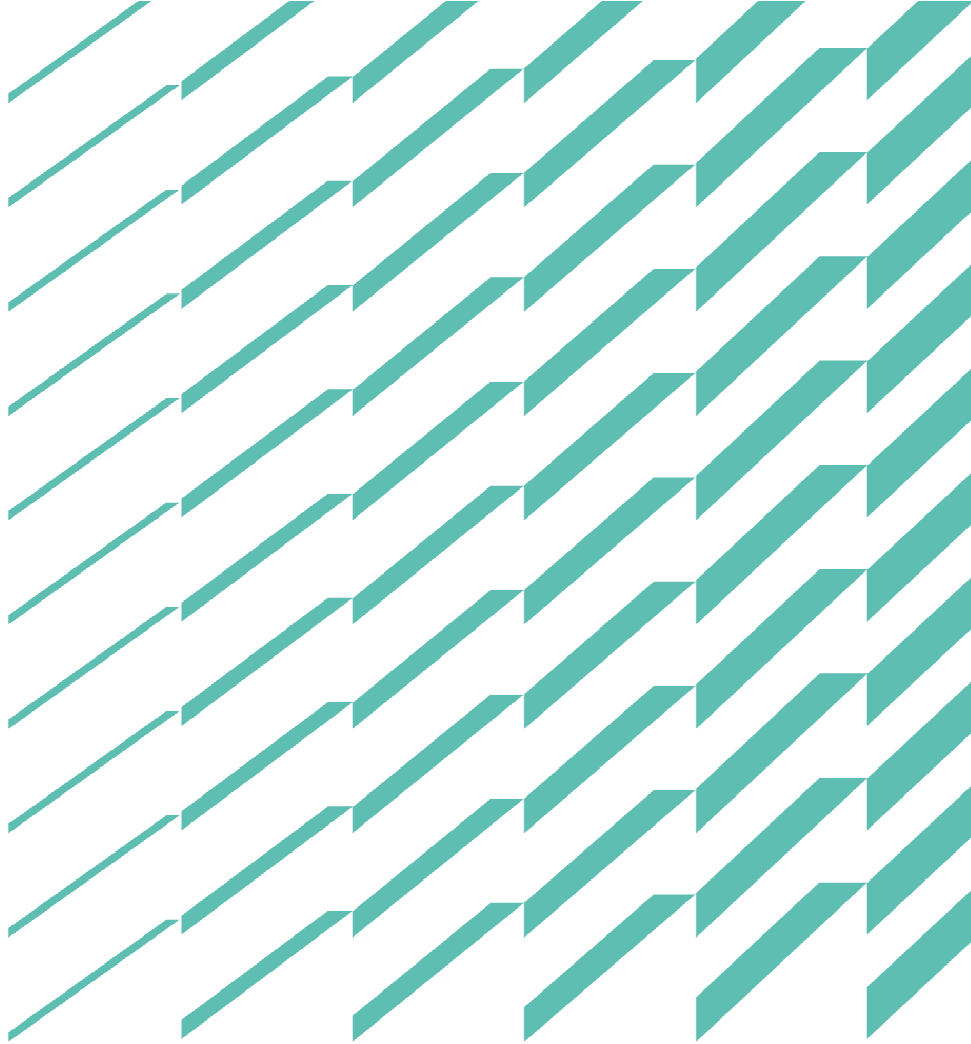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 Under Islamic teachings, “halal” and “haram” refer to permissible and prohibited foods, respectively.
- (Linking Halal and Local Agriculture) High-value agri-food products can be diversified by securing halal-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and raw materials from local farmers for halal food production and by discovering and introducing ingredients tailored to halal food.
- (Revitalizing the Halal Food Industry Ecosystem) This initiative requires scaling up halal food company certification support, building a platform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data and information on halal food market trends, and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halal food products.
- (Understanding Muslims and Halal) Prejudice against Islam and Muslims must be addressed by expanding the halal food service sector and creating spaces that foster mutual understanding, such as Islamic cultural festi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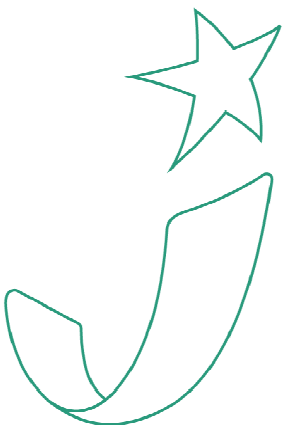
Key Words

Halal, Halal food, Muslim, Haram food, Halal food complex, Food industry



부록

1.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 HK : Busan Indonesia Center Halal Korea) 개요



1. 부산·인도네시아센터(Busan Indonesia Center Halal Korea: BIC HK) 개요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발전 체계와 함께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할랄식품 산업과 지역농업과의 연계, 할랄식품 산업 관련 주체들의 활성화, 그리고 무슬림과 할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지역 할랄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방향으로 할랄식품 소재 원물 공급 체계 확립, 할랄 데모데이 활성화, 그리고 할랄식품 산업 전담 조직 구성을 제시했다. 그중에 지역에 조성된 할랄식품 산업 전담 조직 사례로서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 HK)의 개요를 논해보고자 한다.

가. 설립 배경과 목적

BIC HK는 할랄 산업 생태계 조성 and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 제품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할랄 인증기관으로서, 할랄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부록표 1] BIC HK 비전과 미션

VISION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 제품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할랄 인증기관으로서, 할랄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슬람 가르침, 샤리아 율법 및 과학적 지식을 근본으로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 제품을 보장합니다. 할랄과 관련된 주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효율성, 공정성을 통해 인증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무슬림 소비자가 무슬림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BIC HALAL KOREA 할랄인증제품과 마크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할랄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공유 가능한 전자 할랄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고, 각 정부 당국의 주요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전문적이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이슬람 공동체 및 주요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출처 : BIC HK 홈페이지 (2025)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년 제31호 시행령을 발표하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2026년 10월 17일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할랄 인증이 필수적이다. BIC HK는 인도네시아 BPJPH¹⁷⁾이 인가한 대한민국 공식 해외 할랄 기관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부록그림 1] BIC HK 인증 기관 지정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2024)



[부록그림 1] BIC HK 로고
출처 : BIC HK 홈페이지 (2025)

나. 주요 기능 및 기업 지원 시스템

BIC HK는 BPJPH의 인가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상품들의 할랄 감사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 본원에서는 수출 상품에 대한 인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자카르타 지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제품의 현지 할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증기간을 1개월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들에 시간적 및 재정적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BIC HK는 할랄 분석 실험실을 조성하여, 할랄 인증에 필수적인 다양한 품목의 성분 분석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과 성분 분석을 외부 기관 의존 없이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할랄지식 전파를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할랄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7)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의 할랄 제품 보장 청으로 인도네시아 내 모든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할랄 산업 육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할랄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BIC HK 할랄 인증 요건 및 절차

할랄 인증은 2014년 법률 33호 할랄제품보장법 및 관련 규정, 특히 2023년 제20호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반해야 한다. 인증 심사를 위해 기업은 자사 내에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¹⁸⁾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할랄 경영 방침, 관리 매뉴얼, 재료 데이터 작성, 제조 공정도 문서 작성 등이 포함되며, 할랄 감독관 및 경영 시스템 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제품 생산, 가공뿐만 아니라 보관 및 운송 중에도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완전히 분리하는 엄격한 할랄 공급망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록표 1] BIC HK 인증 절차

구분	내용
예비검토	• 인증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및 클라이언트의 최종 인증 목적에 대해 예비 검토
신청서 제출	• 계약서 작성 및 비용 수납, 신청인은 필수 서류와 함께 신청
성분 분석	• 식품/화장품/의약품 -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감사팀 배정	• 인증의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사원(auditor)이 배정 • 감사 목표, 범위, 기준 및 일정이 포함된 감사 계획이 개발
현장 실사	• 제조 공장에 감사원은 파견하여 할랄제조관리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장비, 생산 공정, 보관 창고를 점검
시정 조치	•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후속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종교위원회 심사	• 이슬람 율법에 의거한 인증가능여부를 검토
인증허가 및 거부	• 인증 규정 준수가 확인되면 할랄인증서가 발급되나,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인증이 거부되고 신청자에게 사유 통보
정기 감사	• 할랄 표준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 실시
인증 변경	•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가 변경될시 사전 심의를 받음 • 지정된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조직이 할랄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인증이 철회
개인 신청	• 최초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을 신청

출처 : BIC HK 홈페이지 (2025)

18) 할랄제품보증시스템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 가공, 유통되는 것이 안전하고 허용되었음을 제3의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체계이며, 인도네시아는 2024년 10월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국제 표준을 강화하고 있다.

라. 추진 성과 및 발전 전망

BIC HK 운영의 대표적 사례는 케이엔비즈의 '찰보리떡'에 대한 할랄 인증을 들 수 있다. 이는 BIC HK의 식품분야 최초의 할랄 인증 사례로, 해당 기업을 약 17억 명에 달하는 세계 무슬림 시장 및 연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BIC HK는 부산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 할랄청과의 공동 협력 아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다. 또한, 2026년 의무화되는 할랄 인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정보를 제공하여, 부산 지역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이슬람권 기업진출 지원 MOU를 체결해 부산기업들이 이슬람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및 안착할 수 있도록 할랄인증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교육 및 세미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BIC HK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지원을 넘어 다른 국가로의 사업 확장을 통한 역량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한·인도네시아 친선 활동, 교육 및 취업 기회 제공 등 사회적 기여 활동을 병행하며, 무슬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 공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초연구 2025-07

전북자치도 할랄식품 산업 육성 방향 연구

발행인 | 장성화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05-7 9530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